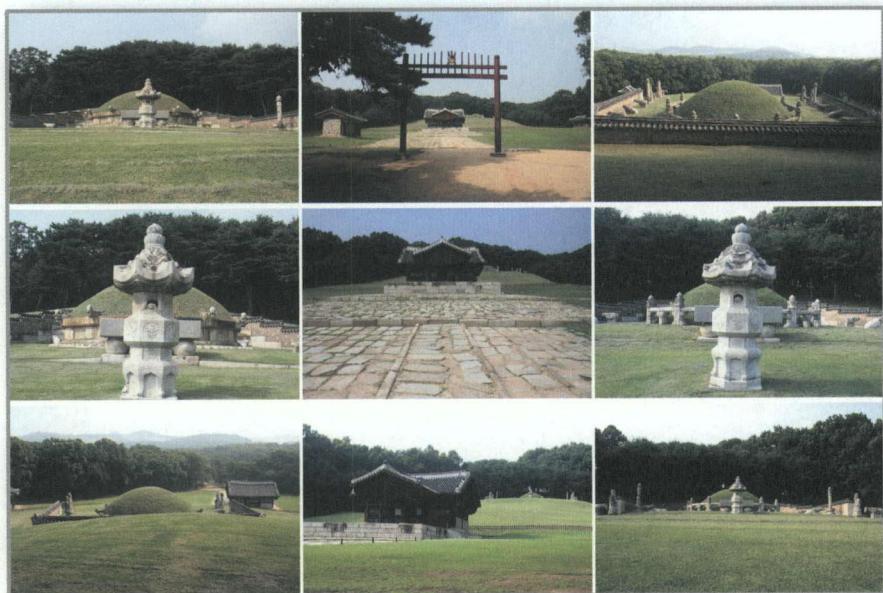


화성시



용릉(隆陵)

1. 연혁

능 주 : 장현세자(사도세자) 장조와 혜경궁 홍씨(현경의황후)

위 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6호

봉릉연대 : 1762년(영조 38)

전릉연대 : 1789년(정조 13)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 오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병점역 앞 사거리에서 한신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84번 국지도를 타고 약 10분 정도 달리면 응건릉 입구에 도착한다. 응건릉은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 쉬우며, 부근에 원찰인 용주사가 함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과 함께 둘러보



웅릉 원경

는 관광 코스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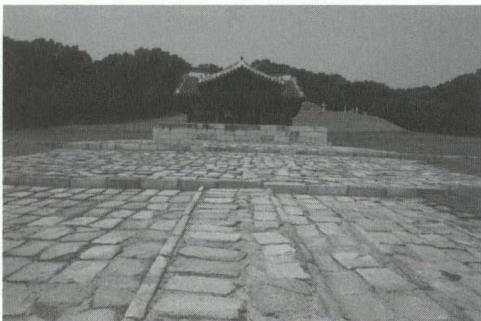
웅건릉은 조선 21대 영조의 둘째 아들이며 사도세자로 잘 알려진 정조의 아버지 장현세자(추존 황제 장조)와 그의 비 혜경궁 흥씨(현경의황후)가 잠들어 있는 웅릉(隆陵), 정조와

그의 비 효의왕후 김씨가 잠들어 있는 건릉(健陵)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사도세자는 영조와 영빈 이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이복형 효장세자가 요절하자 그 뒤를 이어 3세의 어린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1749년(영조 25) 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던 중 노론세력과 대립하면서 주변의 무고 등으로 부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1762년(영조 38) 5월 세자의 비행을 고한 나경언의 고변 사건으로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 속에 갇힌 뒤 생을 마감하였다.

세자의 사후 뒤늦게 이를 후회하게 된 영조는 그에게 사도(思棹)라는 시호를 내리고 경기도 양주의 배봉산에 장례하고 묘호를 수은묘(垂恩墓)라고 하였다.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는 곧 자신의 생부인 사도세자를 장현세자(莊獻世子)로 추존하고 수은묘를 영우원(永祐園)으로 격상하였으며, 경모궁(景慕宮)이라는 사당을 세워 생



웅릉의 참도와 정자각



뒤에서 바라본 응릉 전경

부에 대한 효심을 표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1789년(정조 13) 피가 말라죽고 청룡이 뚫리고 국내와 정자각에 뱀이 또아리를 틀다는 이유를 내세워 천장 을 청하는 박명원(朴明源)의 상소를 시작으로 영우원 천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원소는 일찍이 효종의 능침을 정할 때 윤선도 등이 반룡농주(盤龍弄珠)·대주향공(對珠向空)의 형국을 지닌 최길지(最吉地)라고 평가한 바 있는 수원 도호부의 주산(主山) 화산으로 결정되었고, 그해 7월 하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10월 16일에 천원이 완료되었다.

그 후 1815년(순조 15) 사도세자의 비인 혜경궁 홍씨가 서거하자 함께 현릉원에 안장되었고 1899년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왕릉으로 격상되어 응릉이 되었다. 고종 때 의황제(懿皇帝)로 추존함과 동시에 어머니도 의황후(懿皇后)로 올렸다.

관리사무소를 지나 작은 출입문을 통과하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길을 따라 약 5분 정도 걸어가면 응릉에 도착한다. 봄이면 길 양쪽으로 붉은 진달래가 만개하여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듯이 내려가



응릉 봉분 전경



웅릉 장명등

솔숲을 지나면 금천교가 나오고 그 너머로 홍살문과 정자각, 그리고 봉분이 보인다.

홍살문을 지나면 정자각까지 신도(神道)와 어도(御道)가 이어져 있다. 왼편의 신도는 홍살문을 통과한 영혼이 걸어 들어오는 길이고 신도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진 오른편의 어도는 임금이나 세자가 다니는 길이다. 그런데 참도가 다른 능과는 다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을 폭의 참도는 물론이고 그 아랫단 왼편에도 정자각까지 넓게 박석을 깔아놓고 있다. 참도 왼쪽에는 수복방이 위치하고 있고, 신도와 어도를 따라 걸어가면 정자각과 만나게 된다. 정자각은 왕릉이나 원의 앞에 있는 제전으로 건물 형태가 ‘장정 정(丁)’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면 3칸과 측면 1-2칸 정도에 맞배지붕이며 능제를 지내는 민묘의 상석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비각 안의 비는 두 개인데, 하나는 ‘조선국사도장현세자현릉원(朝鮮國思悼莊獻世子顯隆園)’이라고 써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대한장조의황제용릉현경의황후부좌(大韓莊祖懿皇帝隆陵獻敬懿皇后附左)’라고 써여져 있다. 정자각을 지나 계좌정향(癸坐丁向: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의 능 위로 올라가면 능의 특이한 모습이 펼쳐진다.

정자각 뒤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모신 봉분과 각종 석물들이 조성되어 있다. 정조는 부친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하기 위해 당시의 문화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한 화려하게 꾸미고자 하였다. 난간석은 왕릉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략하였지만 병풍석을 두르고 바깥쪽에 호석(虎石)과 양석(羊石)을 각각 2기씩 배치하였으며 원상 앞에는 고석(鼓石)받침의 혼유석, 망주석 1쌍, 장명등, 문인석 1쌍, 무인석 1쌍, 마석(馬石) 1쌍을 배치하였다. 봉분 밖에는 3면의 곡장을 둘러 봉분을 감싸도록 하였다.

각각의 석물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조와 인열왕후의 능인 장릉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병풍석은 모란과 연화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꽃봉오리 모양의 인석에는 방위를 나타내는 문자를 새겨 넣었다. 장명등은 전기의 팔각장명등과 숙종·영조 연간의 사각 장명등의 양식을 합한 새로운 양식으로 조성되었으며 다리에는 구름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문인석과 무인석은 가슴에 파묻혔던 목이 위로 나와 답답하지 않고 신체의 비례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정조시대 석물 조각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세자의 묘임에도 무인석을 세웠고, 문인석이 사각의 복두가 아니라 금관(金冠)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정조는 불행한 삶을 보낸 아버지의 묘소를 같은 격의 어느 원보다도 홀륭히 상설하였다. 이는 정조의 부친에 대한 효심의 발로이며 왕릉 상설로라도 치장하고 싶었던 정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현릉원 조성 당시 정조는 화려한 석물 배치와 함께 주변의 조경과 식수에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서 이장 후 몇 년에 걸쳐 조경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융릉 주변은 지금도 수목원을 연상시킬 정도의 정연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원행에 나섰던 정조가 현릉원 주변 소나무에 송충이가 번식하여 소나무를 갚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 진노하여 송충이를 잡아 씹었다는 이야기는 정조가 얼마만큼 현릉원 주변의 조경에 신경을 썼는가를 잘 보여준다.

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화려한 봉분, 그리고 정조의 효심이 깃들어 있는 융릉은 사시사철 새 옷을 갈아입은 듯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특히 겨울철 노

송 위에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은 융건백설(隆乾白雪)이라고 하여 화성팔경(華城八景) 가운데 제1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장관이다.

3. 능주 소개

후세인에게는 사도세자로 더 잘 알려진 장조(莊祖)는 1735년(영조 11년) 1월 21일에 창경궁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선, 자는 윤관(允寬)으로, 영조의 둘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영빈 이씨(映嬪李氏)이다. 이복형인 효장세자(孝章世子, 주존황제 진종)가 요절하고 영조가 40세가 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2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고 10세에 영의정(領議政) 홍봉한(洪鳳漢)의 딸과 혼인하여 별궁에 거처했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3세 때 이미 부왕과 대신들 앞에서 효경(孝經)을 외우고, 7세에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떼었다. 글씨를 좋아해서 수시로 문자를 쓰고 시를 지어서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10세에 벌써 정치에 대한 안목이 생겨 집권세력인 노론이 처결한 신임사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1794년 부왕을 대신하여 청정(廳政)에 임하게 되자, 그를 싫어하는 노론들과 이에 동조하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淑儀文氏) 등이 영조에게 무고를 했다.

함부로 궁녀를 죽이고, 여승을 입궁시키며, 한 나라의 서정(庶政)을 맡고 서도 몰래 왕궁을 빠져 나와 평양을 내왕하는 등 난행과 광태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영조가 이를 듣고 수시로 세자를 불러 크게 꾸짖으니 마침내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부자간의 대립관계가 표면화된 것은 영조가 병석

에 있을 때 신하들이 세자에게 약을 부왕에게 권할 것을 종용했으나 거절하므로 영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세자를 보좌하던 소론의 영수 이종성(李宗城)이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때부터라고 한다. 1761년, 세자가 임금 모르게 관서지방을 유람·순행하고 돌아왔다. 그러자 윤재겸(尹在謙) 등이 상소하여 세자의 체통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영조는 세자의 관서순행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파직시켰다. 다음해 5월, 영조의 계비 김씨(정순왕후)의 아버지인 김한구(金漢裔)와 그 일파인 홍계희(洪啓禧), 윤급(尹汲)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羅景彦)이 세자의 실덕(失德)과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려 무고하는 사건이 있고, 문소의가 부자간의 이간책을 쓰자, 격분한 영조는 세자를 불러 자결을 명했다. 영조는 세자가 끝내 자결을 하지 않자 그를 서인으로 폐하고, 세자와 영빈 이씨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뒤주에 가두어 8일 만인 5월 21일에 죽게 했다. 세자의 춘추 28세 때의 일이었다.

영조가 뒤에 세자의 일을 후회했지만, 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의 계기가 된 부자간의 불신과 이간은 노·소론의 당쟁에서 비롯되었고, 남인·소론 등이 부왕 영조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세자를 앞세워 보수적인 노론정권의 전복을 도모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논하는 사가(史家)들도 많다.

사도세자는 정조 즉위년(1776년) 3월에 존호가 장현(莊獻)이라고 추상되었고, 수은묘도 영우원(永祐園)으로 바뀌었다. 영우원은 1789년(정조 13년)에 현재의 위치로 천장되어 다시 현릉원(顯隆園)으로 원호가 바뀌었다가 1899년(광무 3)에 장조의 묘호(廟號)인 응릉(隆陵)으로 옮렸다. 사도세자는 1899년 12월 19일 묘호가 장종에서 장조(莊祖)로 다시 바뀌고, 제호(帝號)를 써서 의황제(懿皇帝)로 추존되었다.

영의정 홍봉한의 딸인 혜경궁 홍씨는 1744년(영조 20) 사도세자와 혼인하

여 왕세자빈으로 책봉된 후 노론세력인 친정과 남편인 사도세자의 대립에서 남편을 잃는 비운을 겪고 혜빈(惠嬪)으로 봉해졌다. 정조 즉위 후 혜경궁으로 옮겨지고 1899년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됨에 따라 경의왕후로 추존되었다. 사도세자의 죽음과 자신의 일생에 대한 자전적 회고록인 《한중록》을 저술하였다.

4. 영우원비

正祖, 《弘齋全書》卷 15, 碑 永祐園碑

思悼莊獻世子 崇禎紀元後一百八年乙卯正月二十一日誕生 初封元子
丙辰 冊封王世子 己巳 受命代理 壬午閏五月二十一日 薦逝 壽二十八
贈謚思悼 七月二十三日 葬于楊州南中梁浦拜峯山甲坐之原 小子嗣服之
年丙申八月 追上謚曰莊獻 圓曰永祐 宮曰景慕 嫫豐山洪氏 議政府領議
政鳳漢之女 有二男二女 長懿昭世孫 次卽小子 清衍郡主 下嫁光恩副尉
金斗性 清口郡主 下嫁興恩副尉鄭在和 又有庶男三庶女一

5. 현릉원비

正祖, 《弘齋全書》卷 15, 碑 顯隆園碑

思悼綏德敦慶 弘仁景祉 莊獻世子 崇禎紀元後一百八年乙卯正月二十一日誕生 初封元子 丙辰 冊封王世子 己巳 受命代理 壬午閏五月二十一日薨逝 壽二十八 贈謚思悼 七月二十三日 葬于楊州南中梁浦拜峯山甲坐

之原 小子嗣服之年丙申 追上諡莊獻 園號永祐 癸卯 追上尊號綏德敦慶
甲辰 加上尊號弘仁景祉 己酉十月初七日 遷奉于水原花山癸坐之原 改園
號顯隆

6. 융릉표석음기

大韓

莊祖懿皇帝隆陵

獻敬懿皇后祔左

莊祖思悼綏德敦慶弘仁景祉章倫隆範基命彰休贊元憲誠啓祥顯熙神文桓
武莊獻廣孝懿皇帝表隧之石 正祖宣皇帝所親書也乙卯追上尊號章倫隆範基
命彰休 哲宗乙卯追上尊號贊元憲誠啓祥顯熙 光武三年己亥十月追尊爲王上
諡神文桓武莊獻廣孝 上廟號莊宗 封陵爲隆陵 同年十一月追尊恭上 諡號曰
懿皇帝 廟號曰莊祖 后孝康慈禧貞宣徽穆裕靖仁哲啓聖獻敬懿皇后洪氏開國
三百四十四年乙卯六月十八日誕生 甲子冊封世子嬪 壬午賜號惠嬪 正祖即
位進宮號惠慶 純祖乙亥十二月十五日昇遐 壽八十一 丙子三月三日葬于水
原顯隆園同封而祔左 哲宗乙卯追上尊號裕靖 光武三年己亥十月追尊爲王后
上徽號仁哲啓聖 上諡號獻敬 同年十一月追尊恭上諡號曰懿皇后 今又立石
于原表之次敬書前面與追記庸伸小子之微忱焉 光武四年月日

7. 융릉지

正祖, 《弘齋全書》卷 16, 誌 顯隆園誌

顯隆園在水原府之花山癸坐丁向 己酉秋 錦城尉朴明源建言 舊園體制多疵類 請改曆 遂卜于花山 卜云盤龍弄珠之象 卿士從 庶民從 乃移葬于是年冬十月己未 改上園號曰顯隆 嘴呼 小子不肖 抱徹天極地之冤 不死至于今 冥然苟然頑然如土石者 且有待於錫胤而託重 得遂誕報之大願至祝 天乎天乎 人欲天從 小子敢於此取必焉 夫然後小子之生 始可永有辭於天下後世也耶 仍舉狀德之狀 泣血謹識于玄宮 狀曰 謂某字某 肅宗元孝大王之孫 英宗顯孝大王之子 曠嬪李氏所誕也 謹稽行錄曰 自誕前數日有星雲之瑞 及誕 日表照人 聲音如洪鐘 英廟喜甚 謂大臣曰 三宗血脉將絕 今則有歸拜列祖之顏矣 命遵肅廟庚午故事 坤殿取以子之 定號爲元子 卽乙卯正月二十一日也 告廟社 大赦中外 睿質岐嶷 未踰數月 已如二三歲兒 命諸臣入瞻 仍令近侍書誠敬二字 舉而示之 踕視若謹受者 秋行輔養官相見禮 命鈔孝經章句 使左右 日誦習于前 丙辰 立爲世子 以三月十五日 備儀衛 行冊禮于養正閣 筵臣趙顯命曰 邸下克肖孝廟典型 實宗社无疆之休也 英廟命宮官 書文王世子篇于屏以進之 及是 已解字義 見王字 指英廟 見世子字 自指之 又解天地父母等六十有三字 丁巳 始開書筵講孝經小學鈔解 宮官進讀 仍手拈文王二字以示 宮官請授音讀 聲明亮至數行無錯 又寫五大字 心畫強正典實 宮中嘗以八卦粉糕進 不御曰 形象八卦 其可食乎 尋見宓羲圖 命左右揭于前 屢拜而致敬 遂於易學 權輿乎此 秋始行師傅相見禮 讀千字文 至侈字 指所御半臂衣及紫羅珠帽曰 此侈也 卽去之 英廟嘗問紬與綿孰勝 對曰 綿勝 又問服何者 對曰 當服綿 英廟喜而對諸臣言如此 及成長 常御綿衣 昭儉之德 根自天稟 而貳謀

反以爲媒禍之階此國人之所共知也一日對夕饌英廟命呼卽吐哺應聲而起左右曰何遽也曰小學曰食在口則吐之英廟曰年纔三歲能識體認之工矣戊午英廟御賓筵吏曹判書趙顯命進曰臣待罪賓僚瞻望東宮睿質絕異英儁豪爽有凌駕千古之象蒙養之方宜不激不隨將來成就責在殿下後小朝教曰豐原此語有心界之融合者所以眷待之終始靡替也己未英廟下備忘記于廟堂準乙酉舊典行內禪之舉教曰予卽位今十五年九五之位視若草芥幸有元良已滿五歲予雖釋負豈忽元元宋太宗置朕何地之說是何心也命下廷臣力請乃止仍命小朝受賀于時敏堂蓋因內禪之旋寢也夏上徽號於東朝且法服行禮進退有度未或失儀宮中咸噴噴按記注曰宮官趙重晦疏言天日之表一瞻可知視瞻非常儼然若成人此實天縱之聖請以四五日一接僚屬八九日一引賓客爲式從之自是每臨講筵未過數遍已成誦久而無遺壬戌行廟見禮禮罷上教曰元良侍傍問以私廟之行將在何日彼八歲猶欲伸禮後數日詣私廟展拜都民仰瞻睿姿蹈舞歡呼上曰世子禮容閑習儀度無錯陟降豈不悅豫乎三月行入學禮御儒衣冠酌獻于文宣王至明倫堂就博士席講小學題辭環橋而觀者凡千萬計嘗講學講官仰問平日所欲學者答曰願學堯舜外此則不知已講官退語曰三代之盛可復見也又有以孝悌誠敬仰勉者卽書四字付之座右講官質以誠敬用功之先後答曰誠敬如車輪鳥翼不可分而二之也宮官請見睿藻詩中有日出東方明四海之句宮官賀曰此詩氣象同符藝祖日出詩癸亥三月十七日行冠禮以法服朝謁于大朝退受百官賀按行錄曰嘗侍英廟坐英廟問曰我朝搢紳自古有黨論何以則已乎對曰一視竝用則可英廟大加嘉歎英廟視事或至夜分必整衣端居候就寢乃寢每讀書必竟晷忘倦英廟常令止之有疾英廟若臨視必進衣起坐未或以憊色見於外按宮中記聞曰甲子正月十一日行嘉禮娶領議政豐山

洪公鳳漢之女 粵三日 與嬪宮從上行廟見禮 先是 有星孛之異 至嘉禮時 星忽不見 上書古鏡重磨方篇題 命宮官進講 上問曰 心何比於鏡 誠敬何比於磨 對曰 敬爲徹上徹下之工 誠是眞實之謂也 誠敬乃治心之方也 賓客李宗城仍敷衍以對 言甚懇摯 自是感其誠意 際遇甚隆重也 冬上違豫及瘳 行進宴禮 既而臨講 講官仰問曰 臨筵讀書 與參宴聽樂 孰好 答曰 讀書 所以窮理 聽樂 爲是侍歡 讀書固好 聽樂 亦自爲好也 乙丑 上製常訓 命進讀 教曰 字音能續 敷對有據 寅賴陟降之陰鶩 爲僚屬者 亦善導也 春行畫講 講小學北齊太子救高允事 謂宮官曰 太子非矣 以子而欺父 烏乎可也 高允之直書 史體也 非可死之罪 以此意救之 太武如不從涕泣而諫亦可 丙寅春 陪上觀種稻于後苑 上問曰 稼穡奚謂艱難 對曰 盛暑水熱如湯 而農人撥穠耕鋤 艱難可想而知 上命以卽景賦詩 教曰 首句卽憫旱望雨 落句卽勉予修德 予年已踰五旬 而得元良加勉之語 可媿亦可嘉也 仍行夜對 教曰 今日見東宮詩 意思宏遠 大雨行一句 有大風歌氣象 予心自此有所恃也 嘗與宮官論辛壬事 洞辨義理源頭 仍下愛日箴以示意 上在靜攝 召接藥院諸臣 副提調洪象漢曰 昨見世子達夜侍側 夫孝者 百行之源而冲年能如此 實宗社之福也 上親製勸學歌以諭之 仍教曰 元良近又勤讀 雖於夜深之後 起坐讀書 予無寐時 聞元良讀書聲 氣益勝矣 丁卯 宮中有痘患 命避寓于慶德宮 每以久曠三殿起居爲憂 筵臣有以白上者 上教曰 冲年愛親之心可尚 卽日駕臨 及還宮 又以躬詣承候屢請 上特命還次 嘗親自種麥 上問曰 物之可種者多 不種奇花異木而必種麥 其義何取 對曰 以其爲穀而欲觀其成實也 上大喜 五月 上御歡慶殿 命賓客春桂坊入侍 開書筵 講讀論難 競夕而罷 上大悅 賞賜宮僚有差 冬又移寓于慶德宮至翌年戊辰春 令宮官請承候 上諭止之 每於問安宮官之行 輒附奏以爲常宮官李彝章等 進故事 答以自古聖王孰非大孝 而鄒聖之獨稱大舜者 常人

之情 易隨物遷 而舜則以天下不移也 故稱之 飯糗而茹草 被袗衣鼓琴 舜何與焉 又曰 伊尹以斯道覺斯民 道也者 卽所謂堯舜之道 堯舜覺之先者也 伊尹之覺 後於堯舜 而斯民又晚覺者 覺有大小淺深 覺則一也 道亦一也 又曰 百里奚不諫虞公 而孟子稱其智 然張南軒謂使在當諫之地而不諫 是爲不忠 人臣事君之義 當以南軒之說爲正 又曰 人君有好賢之誠 則舉一君子 足以勝衆小人 孟子以薛居州孤立無助爲憂 君子孤立 則可憂者 豈獨一居州也 又曰 氣 體之充也 善養則爲堯舜 不善養則反爲害事 如漢武是已 此非氣之罪也 要在養之如何耳 試臨筵教羣臣曰 賢邪進退 係國興喪 左右諸大夫國人 固言之矣 鄙之陟之 更有何疑 而猶且難慎者 苟不明辨於好惡與公私之分 則輿誦衆謗 亦不可泥 看此孟子所以取匡章於衆謗之中 謔仲子於輿誦之際 也須以吾之權度 裁制取捨 然後庶可免於撓奪 不如是則太阿將倒柄矣 御書筵講孟子 論攸不爲臣之義 教曰 周德至矣 天下咸服 當是時 不爲周臣者 是皆稔惡害民者也 爲天吏 安得不征之 後儒必以助紂離商等語 爲武王分疏 其見局矣 又曰 善者 天下之公理 誠心樂取 則天下之善 莫非已有 此大舜至公無私之心也 然知不明則無以知人之善 故爲學必先致知 又曰 心者 一身之主宰 不可斯須放失 此心一放 甚事可做 又曰 利莫大於仁義 此易所謂美利利天下也 孟子言仁義而不言利 政謂美利之利也 又曰 孔子則曰微管仲 吾被髮左衽 孟子則曰 管仲曾西之所不爲 隨時立言 各有所當 孔孟豈有異哉 非聖人 孰能知時之義乎 是年夏 和平翁主卒 先是誕彌之初 上教嘆嬪曰 不重則不威 當此定號之初 宜大其規模 以尊一時瞻聆 過百日 乃命小朝移御于景廟舊御之殿 殿名曰儲承也 女官寺人 皆以逮事景廟 而選出於甲辰庚戌者 悉充之 盖滌染汙安反側 以導迎和氣也 此輩乃反 陰幸其得志 居無何 鼓吻抵掌 戒其徒曰 嘆嬪雖誕世子 卽私親也 有君臣之義 勿使之頻見 見必用嬪御謁正

殿之禮 以拘制於禮數儀節之間 於是 嫣嬪不能頻造 或日一至 或間日間數日至 或月一再至 計既成 又忌大朝之頻臨 列入宮巷中 覓上動靜 日以蜚語眩惑之 小朝以此狀細陳於上 上始悔之 然女官寺人 卽景廟朝舊物不忍寘之辟 而聖意自不得若常也 時翁主泣陳曰 事關景廟 其嫌甚小 三宗血脉 所係甚大 豈可以一時銷刻 不念宗社之重乎 以是兩宮之間 和氣漸至索然 直欲痛哭而溘然也 又切諫於母嬪 是時上在集福軒 與儲承殿距甚遠 及丁卯 命移次于景春殿 蓋取其便近而從翁主請也 至是翁主忽有疾不起 小朝痛悼盡傷 深究處難之方 外廷之知此事者 莫不爲東宮危之 豐原府院君趙顯命 靈城君朴文秀 右賓客李宗城等 發臨機衛護之議 己巳春命小朝代理庶政 按記注曰 正月二十二日夜四更 上下一封書于政院 蓋內禪事也 承旨請對繳還曰 俄過德成閣 東宮已明燭而坐 其驚隕罔措 尤當如何 已而邸下進至大朝戶外 倚伏涕泣 領議政金在魯等 入侍 拆見封書 卽首舉內禪 次及代理也 諸臣迭請還寢 上命邸下來前者再 邸下進伏於御座前 嘁咽垂涕請懇 上曰 自有古例 須勿驚也 右議政趙顯命曰 辛丑聽政命下之時 殿下垂涕臨筵 何不以殿下其日之心 度東宮今日之心乎 上始感悟 止命代理 顯命曰 第一件幸蒙還收 而雖第二件 臣等豈敢奉承 上不聽邸下猶俯伏涕泣 上屢命始退 粵六日 御時敏堂 行代理朝參下令旨 僥小大臣工 精白寅協 一心輔國 又令諸道懷保民生 又令京外婚葬過時者 自官顧卹 右參贊元景夏白上曰 臣等見初筵令旨 孰不相傳鼓舞而思所以精白寅協之道耶 戶曹判書朴文秀曰 代理命下之時 東宮涕泣滿面 處義中節外人聞之 皆以爲慶幸矣 後數日 因上教中元良勝予之教 文秀力陳調護之說 又數日 請以用人恤民等事 願賜面敎 使小朝遵法 後又言 帝王家法嚴截雖美事 不可一向太嚴矣 上曰 我朝家法 本自如此 體昔年小心 予亦至于今日 按宮中記聞曰 御書筵講詩經 教宮官曰 陟岵不言己之思親 只

言親之念已 孝子以父母之心爲心 其說如此 而自己思親之情 自在其中
講尚書 教曰 堯舜大聖也 其臣猶以無怠無荒戒之 人臣告君之道 宜主責
難 况不及堯舜 而臣無讜直 其可爲國乎 又曰 殷三宗周文王 所其無逸而
享國長久 帝舜逸於任人 而歷年最多 雖若異 然無逸而後乃逸 人君之道
捨無逸奚以 庚午八月 懿昭世孫誕生 告廟頒赦 按行錄曰 九月英廟幸溫
泉 其翌日雨 召留都大臣領議政趙顯命等 教曰 大駕纔發 昨日雨甚 聖候
不瑕有損 用是燥鬱 召見卿等矣 仍命勞留都軍兵 自是至還宮 幾近二旬
夜必整衣達朝 以久違天顏 日夕慕戀 輒不禁涕下 宮中甚訝之 問其故 教
曰 自余生來 初當遠離 思親之心 不得不然 及回鑾 英廟聞此教曰 元良
事 每出意想之表 按記注曰 辛未秋 以諸道癘疫之熾盛 下令旨 篩方伯
別加周卹 壬申春 以大朝上號 庭請屢日 上詣皇壇 有請命之舉 諸臣泣請
還內 不許 小朝便服 步出至上前 泣懇不已 命只行慈殿進號 上還內 小
朝詣明政殿月臺 伏閣至明發 三月 懿昭世孫薨逝 小朝克自寬抑 上慰三
殿 九月 誕元孫 教曰 今日之欣慶 勝於庚午 冬睿候有紅疹之漸 藥院直
宿 引接必備儀 諸臣請於臥內召接 教以著一重衣何難 而臥接臣隣乎 時
廷議歧貳 英廟却藥 小朝謂承旨曰 余代理四年 不能仰體聖教 至有却藥
之舉 余何心服藥乎 十一月 上因事激惱 下傳禪之教 旋即還寢 十二月
幸松峴宮 又命傳禪 過數日 御宣化門 復宣前命 小朝俯伏涕泣 稽首請命
額血沾于席 領議政李宗城曰 東宮泣涕滂沱 誠孝極至 殿下旣許反汗 不
可食言 如此深冬 觸寒甚悶 况重病之餘乎 命宗城等 中途付處 翌日 駕
臨毓祥宮 小朝將執裾力請 上旋駕 臨彰義宮 閉閣 是夜 小朝步至宮門外
上疏 不答 待命至曉 排闥入請還寢 不從 仍促命還宮 及翌夜 又詣宮門
外俯伏 上不許 退至敦化門外 席藁待命 如是者屢日 上將臨北漢行宮 小
朝涕泣謂承宣曰 余之死生 固不足恤 當此嚴沴 聖體觸冒 中心如割 不能

按住 卽令藥院之臣 更進蓼茶於上 過數日 上始還宮 寢前命 按宮中記聞曰 時有和協翁主之喪 慮惜不自勝 教曰 吾於此姊 別有顧念之情 而今忽奄逝 此慟何比 無以躬臨洟哀 卽余至恨 癸酉正月 領議政李宗城 遭彈出城 至三月 始還鄉里 時文女有娠 中外遑遑 宗城力主衛護之論 前年冬幾爲異志者所擠 至是下石益急 宗城退至城外 終不還鄉 至三月初 文女生女 始曰 吾家世受國恩 不可以時人之欲逐 動吾素志 雖拳踢交加 惟知有進無退 一死而已 今幸聞翁主生 自此吾可決歸 遂上書告退 還鄉里 小朝曰 百人雖言文女之事 余則曰決無是 設有之 以大朝日月之明 岂患其不賜嚴斥乎 但羣下依違之計 賴有相臣 得以鎮安云 冬 承命行三覆 決死囚 全活者多 自後 每歲如之 夜召宮官講論至漏分 賦貢橘于宮官 橘盡盤中有詩 宮僚卽席拚和 甲戌 令諸道還穀 行袁益之政 哉除小民切苦之瘼 禁大同軍布代錢防納 太學儒生 以齋隸 持御賜銀杯而夜出 爲邏卒所捕 遂捲食堂 教曰 大朝重儒之德意何如 敢因微事起鬧 致令聖廟無人可乎重推本兵長 仍命勸入齋儒 嘗講論語 至三月不違章 講官奏曰 此孔子言也 顏子名 不當諱也 教曰 孔子雖言之 讀之者 後人也 遂諱而不名 下令旨 在外書筵官 幷敦敕赴召 講四勿箴 教曰 夫私慾之發 有大小淺深 而略於小失 馴致大過 則其害均耳 昭烈曰 勿以惡小而爲之 此誠至言 上聞之 嘉賞曰 講學之力 誠不淺 講小學教曰 謹然四端 隨感而見 旣見則擴充之 未見時 亦須有主敬工夫 未發時主敬 然後可以發皆中節 敬之旨 先要分明識得 又曰 孫思邈云心欲小而膽欲大 武王師渡孟津 政是發揚奮勵氣象 而猶曰夙夜祇懼 聖人之心小膽大 此亦可見 冬以日寒 放輕囚 乙亥逆變 上御帳殿鞫囚 命小朝侍坐 教曰 辛壬疏下六賊及奇輝 今始追施逆律 自此義理始明 不可不知也 講綱目教曰 卽墨之堅守不下 似是威王時受賞之大夫 嘗有保障之功 得力於是日矣 又曰 幸臣九人 旣讞田單 惟貂

勃訟其冤 齊君宜疑 以有私乎田單 而不但不疑 乃反用之 齊君誠賢矣 又論澠池之會曰 夾谷之會 孔子以禮導君 齊君懼服 不敢有加於魯 果使相如 以禮爭之於初 則必不如是費力也 又曰 漢文帝可謂賢君 而尚黃老制短喪 有賈誼而不能用 終難免後世譏議 但賈誼之疏 徒規規於時政得失 不及本源之病 較諸董子正君心之論 自有差等矣 又曰 唐玄宗謂朝事付宰相 邊事付將帥 朕復何憂 此與古所云勞於求賢 逸於任人者 似不相悖 而玄宗則不能勞於求賢 但知逸於任人 駟致天寶之亂 可不懼哉 且其論韓休蕭嵩時 私語左右者 已不能誠心樂賢 有勉強拂戾之意 此非可繼之道 可知其治之不終矣 又曰 衛嗣君以祖宗土地 易一胥靡 立法則嚴矣 謂之知輕重則未也 又曰 樂毅伐齊 劍辛以孤軍深入難之 然魏略宋地 趙收河間足以牽制齊師 一舉成功 是故 兵貴審勢 夏甚熱 宮官請改書筵時刻 令日早暮稍涼 正宜誦習 且大朝畫講以午時 余何敢憚熱而改時乎 遂不許 書筵官宋明欽以縣官陞辭 特命召對 討論大學誠正之義 從容咨訪 酬酢如響明欽曰 誠正之說 宋帝之所厭聞 而邸下闡發微奧 疊疊不倦 此可見睿學之實心用工矣 講孟子 教宮官曰 禹驅龍蛇而放之菹 禹何以驅逐龍蛇耶 禹既疏水通道 濬爲沮澤 則水之所歸 龍蛇隨之 自然有驅逐之勢也 故曰 勢而已 聖人審時察幾 無入而不自得者 亦惟曰順其勢 知進退存亡之幾者 時中之聖人也 丙子五月 樂善堂火 按記注曰 下令旨曰 余不肖 濫承代理已八年 無一事仰體聖意 每貽憂於聖心 至于今日 實羞對臣僚 幸賴我聖上至慈至仁 伏承昨日下教 感惶交極 不覺涕下 在廷大小臣僚 勿以余不敏 隨事匡救 上聞之 教曰 元良責己之言 豈否德攸致 荷陟降之眷佑 大小臣工 體我元良此意 至誠輔導 按宮中記聞曰 小朝素不近杯酌 宮中大小之所知 而時有相反之說 小朝以聖訓無勉之意下旨 反躬自咎 亦以過飲告于上前 左右以無是而目有是 反爲不誠答 以至慈至明 自可辨燭其虛實

我何敢以自明之說 發諸口乎 俄而上聞下旨責躬 甚嘉悅 教曰 此等辭說之流行 皆予之過 屢示感悟之意 又下傳教 示聖意於中外 先是火起之翌日 上責羣下曰 近來事 無人告予 朝臣無可恃矣 賊臣金尙魯對曰 小天亦可畏 故不敢矣 次詢承旨 承旨李彝章奏言 世豈有如此道理 殿下將安用如此之臣乎 上曰 是矣 承旨言果是矣 彝章又言 父有過失 子未嘗不諫 故古語曰 父有爭子 子有過失 父未嘗不教責 故傳曰 人樂有賢父兄 父子間有過 諫之責之固也 而聖人所謂父爲子隱 子爲父隱者 諫之責之 而使外人不知其諫其責 是之謂隱 今朝辭教 實有違於聖人一隱字 此何事耶 上遂怡然曰 所達出於至誠 如承旨者 如是憂之 而不逞輩必聞而喜之 彝章猶不悉本事 故所奏止於此 及令旨先降 傳教繼下 宮中與外廷聞者 相賀曰 感悟由於聖慈 所以感悟 亦由於睿孝云 又下令旨 求直言極諫 飭中外勸農賑乏 咨訪民隱 冬患痘候 及平復 陳賀頒赦 丁丑二月 貞聖王后昇遐 小朝號呼攀擗 皇皇若靡泊 自殯至輓 五時之奠 七時之哭 困不躬將而致其誠 曉夜朝晡 幾不輟聲 戚畹執事者 皆感激讚歎 中外聞之 亦莫不揮涕 上教諸臣曰 予則無所疚懷 而今見元良哀毀之狀 將何以抑遣乎 判府事俞拓基奏曰 向來聖候未寧 入侍崇文堂 竊仰東宮達曙焦熬 或慮有大病患 今若任情哀疚 則傷損必至 惟望聖念之加護也 至三月 仁元王后又昇遐 上哀毀逾節 小朝左右寬譬 情禮咸備 六月 貞聖后輞啓 至闕門外哭辭哀動左右 都人士女爭觀容光 掩泣攔前 前驅辟之 令曰止之 恐傷人也 至虞返 迎神輦于郊次 哀哭移時 泪流席如雨 教曰 廟衛與余儀仗相隔 無以瞻望 其令分隊而行 親撰幽宮之文以藏之 外臣皆不得知之 自後寢疾甚篤而力疾行兩魂殿七虞及朔望祭 疾愈篤而哀愈毀 時輔德尹東昇調護周旋之力居多 每教曰 非東昇 烏能導達昭暴乎 按記注曰 戊寅秋 上俯伏魂殿庭口奏 卽不敢聞之教 仍命史官書之 命罷領議政李天輔職 翌朝 都承旨蔡

濟恭等 率諸承旨史官奏言 殿下何爲而有此舉耶 爲臣子者 不特不敢見
亦當不忍見 孰敢搦管移書於記注乎 臣等冒萬死繖還 退伏鉄鍼之誅 仍自
袖中奉出口奏謄本 跪置于上前 良久 上曰 言則是矣 予當受之 至是月晦
上御明政殿月臺 小朝席薙時敏堂後庭 領府事李宗城求對言 殿下典學四
十年 而今乃處君臣父子之間如此 此臣之所痛心也 上曰 今又責予 予將
退歸矣 仍欲起立 大臣奏以領府辭不達意 請令更陳其所懷 宗城曰 臣之
言非辭不達意也 人臣之義 在大朝則責難於大朝 在小朝則責難於小朝 今
日之事 毋論臣等之心 雖六軍萬民 莫不延頸願死者 爲是吾君之子也 惟
其有宗社神人之託 故日夜所冀望 惟願過失之無聞 不幸有過失 亦不欲彰
著者 卽天理人情之自然 若言其所以然之由 卽爲是吾君之子也 殿下之於
東宮 卽是一體 何可分而二者耶 以一體而分以二視之 此臣之所痛心也
仍以遠佞斥讒之意發端 語未卒而退 濟恭與諸大臣還至時敏堂進對 小
朝下責躬求助之教 宗城濟恭 迭陳積誠回天之方 按宮中記聞曰 翱年正月
領府事李宗城卒 臨死語人曰 吾恐死不得其所矣 樂善堂入侍 欲以死自明
而不得 明政殿入侍 又欲以死痛陳而徑退 今已矣 生爲負國之人 死爲不
瞑之鬼 報聞 上驚悼嗟惜久之 小朝御素帶素膳 至成服日 卿孤賜祭需 終
三年 己卯 行世孫冊禮 行中宮殿冊禮 按行錄曰 小朝事中宮 一如貞聖王
后 宮中咸仰誠孝之篤 英廟歎曰 予見元良事內殿 誠無間然 以是內殿 亦
備盡慈愛 是年 頒武技新式于訓局 按宮中記聞曰 小朝自幼時 志度已英
爽 遊嬉必陳兵威 上試叩其所存 有問 輒條對甚悉 凡坐作進退 緩急虛實
之方 皆手畫口授 無或差爽 又喜讀兵家書 奇正變化之妙 無不默識精通
孝廟嘗喜武技 暇日御北苑 輒馳馬試藝 所御青龍刀鐵鑄大椎 尚在儲承殿
武士之有膂力者 莫能運 小朝自十五六歲 已皆舉而用之 又善射御 執矢
對鵠 發必中心 臨轡飛鞚 悍馭亦馴 宮中相語曰 豐原筵奏 克肖孝廟之說

果有先見云 至是憂將臣之不閑武技 編成一書 名以武技新式以頒之 蓋戚志所載 武技所傳者 只六技 曰棍棒 曰藤牌 曰狼筅 曰長槍 曰銳鈚 曰雙手刀 而演習之制 多失其方 就舊書悉訂正之 又以竹長槍旗槍銳刀倭劍交戰月刀挾刀雙劍提督劍本國劍拳法鞭棍凡十二技 嶄演爲圖 以示擊刺之勢彙成全書 付之訓局 使肄習之 嘗教曰 我國偏小 用武無地 然東接倭 北隣胡 西南大洋 卽舊時中原 今雖邊塞無警 宜講苞桑之謨 况孝廟志事 無處可伸 而北圉尺壇 慚我寤歎 噫 兵器雖在 安謐無虞之時 聖人猶且制置以待暴客 况我國地方兼有孝廟志事乎 每誦陶侃日運百甓之語 靜夜宴閒輒自試之 又教曰 醫者 疑也 人之臟腑心肝 雖難盡知 而摸索推類 亦可理會 醫國之手尙矣 苟能粗解藥性 稍辨脈理 一日醫一人 二日醫二人 漸就鍊熟 自當爲一時名醫 儒者之學 自有疑求無疑 况醫家之以疑決疑者乎 自是凡有指畫 莫不立效 然以其小技 不屑留意也 又教曰 古者衣服之制各有攸象 今所謂摺衣與圓袂衣 余嘗惡之 摺衣則塞三面而通後幅 其象屬陰 古人云中國屬陽 夷狄屬陰 東國摺衣之制出 而始有北通建州之漸 圓袂衣則前疊二幅 後拖一幅 亦非面南背陰之義也 宴居必御臥龍冠鶴摺衣 而鶴摺倣司馬光深衣之制也 又教曰 我國正服 是團領與貼裏 團領乃王朝會同之服也 貼裏卽黃帝衣裳之度也 至於戰服狹袖 俱是尚古制 而禦戎事之衣也 又教曰 近俗不知備豫之謨 節儉之道 豫則無憂 儉則裕財 今之服著器用 華旣而近奢 捷利而便體者 余未嘗近之 又教曰 宮中人有以自中過失來告余者 輒使告人被告人 相與辨質 若無驗則罪告人 雖或有實 必兩治之 自是告訐者少息 司直朴致遠上書陳勉 優批答之 後因重臣徐志修筵席陳戒 教曰 是誠愛我 前後以睿德言事者 咸被嘉獎之教 嘗以桂坊羅蔘曾於胄筵 多有鯁直之言 後對宮僚 必問其安否 一日 宮官有以時事之憂虞仰問者 大加嚴責曰 此間我兩宮也 寔小之目 政謂此輩 按記注曰 時

掖隸有憑藉下令 橫濫民間者 事覺 卽令出付有司 仍下令旨曰 近來紀綱解弛 此後之無此弊 未可知 更有犯者 法司直爲自斷捕治 庚辰秋 上移御慶熙宮 七月 幸溫泉 八月 還宮 按行錄曰 時小朝久有寢疾 英廟命浴溫井 駕到江頭 水漲船路不固 至晚始渡 在船上 與宮官李壽鳳等 講君舟民水之說 翌日 至水原府 府治之北 有花山 卽己亥寧陵置標地也 登臨周覽嘆賞良久 還次山城 閱武技 輦路所過 父老擁遮爭瞻 輒駐駕詢疾苦 命減征徭 一路大悅 有一衛士馬逸 入菽田 蹤且吃 招地方官 厚償田主 亟治衛士 存卹邑中高年 敦召遺逸之士 及到溫泉 逐日開講筵 遵列朝溫幸時召對玉堂官故事也 下絕句一篇 命宮官和之 及月改 行望闕禮當否 詢于宮僚 仍教曰 久離京闕 慕戀難耐 是日遂還駕 將直詣慶熙宮承候 英廟遣知申迎諭于城外曰 病餘驅馳 宜直還調養 緝間來見 相臣進對奏曰 鶴馭一臨 湖中人士始識睿德之度越 父老士庶 莫不讚頌德意 實臣民之幸也是行自出宮至還駕 輒令壽鳳馳還所過地方 慰諭居民 仍察傷稼 又以時值極暑 命藥院劑藥 以救將卒之在道中渴 及還 無一人病者 辛巳 間時措之策于大臣 大臣不能對 遂有西邑之行 蓋欲請命於上 以沮賊謀也 賊臣洪啓禧欲從中搆亂 小朝聞之 促御徑還 時有一承宣自於上 請覽廷臣章疏之上小朝者 事機急迫 小朝躬詣上前 悉告以處變之本意 上始釋然 後小朝臨賓筵教曰 儲君亦君也 名以臣事 包藏奸謀可乎 仍以逆禧之無嚴 荐下嚴教 比之江充 自是謀益急 壬午五月 賊人羅景彥伏誅 按記注及宮中記聞曰 景彥投呈一狀于刑曹 狀中 有殿下肘掖之臣 皆懷不忠 變在呼吸之語 刑官自曹坐 袖其狀請對 時逆禧以畿伯 先爲來待 上并命入侍 刑官以狀告 上大驚 間內侍曰 景彥是掖隸尙彥之族乎 內侍對以卽尙彥之兄 而曾屬掖隸者 上問逆禧曰 宮城扈衛可乎 逆禧進前奏曰 國家有變 扈衛宮城 戊申 亦已行之 上卽命閉城門 發兵把守宮門 仍御太僕 鞠景彥 景彥

白衣縫中 又出一封書 長過五寸 圍盈一握 因上之 上覽已 示左相 左相
纔見數行 失聲號泣曰 臣請先死 東宮若聞此 當作何心 臣請往慰之 上曰
唯 判義禁韓翼謩等言 景彥譖出凶言構誣 上逼東宮 其罪當戮 屢請嚴鞠
正法 上始命加刑 司書任城奮然謂翼謩曰 凶言豈景彥所自爲耶 翼謩又請
亟覈指嗾 上怒 罷翼謩職 大司諫李心源 救翼謩 又罷職 翼謩等既黜 景
彥竟以誣陷東宮服 於是諸臣同聲請置極律 同義禁李彝章曰 誣人猶當爲
逆 况誣貳君乎 凶言既皆歸虛 罪人今已輸款 不可與此賊俱生 進前力言
責教荐下 而言愈截直不少沮 時小朝步往胥命于闕門外 上命入來 遂進伏
于庭 淚淚沾袍 羣下莫敢仰視 夜將曉 鄭翬良始請對奏曰 罪人旣以四字
自服罪 不可一日容貸 上乃命景彥正刑 翌朝 小朝始還宮 泣謂諸臣曰 賴
有止慈 得免駭機 閏五月二十一日 薦逝 賜謚思悼 賜宮墓號曰垂恩 以七月
二十三日 葬于楊州拜峯山甲坐之原 葬之日 上臨壙 以御筆題主 翌月
荐棘趙載浩于北邊 其姪維鎮株連繫獄 臺臣請置法 上教曰 瞻彼銅龍 予
意若何 在諸臣 宜思不忍言之心 命亟停 仍罪言者 維鎮累被拷掠 抗言無
二辭 遠配道死 按記注曰 閏五月十三日 檢閱尹墊下庭叩額 血流被面 潟
出衛外 招醫官持藥以進 時諸大臣在閣外 不得入 墊叱衛士 挺身躍出 執
大臣手偕入 墊責申晚等曰 當此危急之時 大臣不能碎首天陛 以死力爭
將焉用大臣爲也 賊臣具善復洪麟漢等 各逞凶圖 墊竟坐謫黑山島 而上猶
稱此人可愛可愛 分司翰林林德躋隨伏庭下 不離左右 上命逐出 猶據地不起
衛士曳而黜之 德躋叱曰 吾手秉史筆 此手可斷 不可曳也 命竄旌義
尋命墊與德躋放宥 後德躋甄用 宮官任城權正忱等 拼死不出 分注書李光
鉉 亦挺身率醫官以入 都承旨李彝章叩頭涕泣 抵死爭難 上怒命付軍門梟
首 旣出 又排闈以入 伏地痛哭 命書傳教 泣曰 臣當就死 不敢聞命 趕而
出 俟命于金吾門外 命牌招 終不進 後命差墓所敦匠之任 宋瑩中等 以臺

諫攝他語彈之 上嚴斥之 及卒 卽命錄用其子 有國亂思良相之教 分司提調韓光肇排闥直入 免冠呼泣 上命罷職 光肇曰 臣不惜死 臣有一言 又命推出 光肇痛哭匍匐而出 其父曰 未能碎首辦死 何以參班 遂不參頒教 光肇坐謫大靜 尋放 後教曰 頃者處分 予自悔矣 及卒 親製文祭之曰 父子同朝 一片忠赤 仍錄其子 承旨趙重晦涕泣力陳 命島配旋寢 重晦又進伏抗言不撓 坐遠竄 後有烈風知勁草之教 屢陞爲冢宰 提學韓翼萼五違召命不製教文 教曰 分義似然 其勿招 又命製進致詞 召牌凡八下 終不進 席藁金吾 坐削職 後屢加嘉歎 擢拜上相 承旨李翼元 力抗不書傳教 承旨鄭純儉上殿大聲曰 請殺臣 臣雖死 不敢頒此教 坐罷職 摠管李泰和免冠叩頭極爭 後特命加資 甲申秋 行入廟禮 上臨視 乙酉五月忌辰前一日 命停視事 下綸音于廷臣若曰 昨年後初當此日 停經筵 豈自便也 嗚呼 心不若此 非慈也 又何以慰靈 吁嗟臣工 知望八其君今日之心 而若有臣分浮囂躁競之心 若春雪春冰自消解 大臣等仰請靜攝中 卽進常膳 翌日 又命垂恩墓獻官洪樂仁行祀後 看審局內回奏 及登筵 詳詢樹木長養 至秋 上幸於義宮 命世孫往拜廟宮 垂涕送之 多有追思之教 仍步登苑麓 倚牆遙望者移時 自後每於中夜 輒叩闕歎曰 古有思子宮望思臺 予豈料身踐斯境乎 又教筵臣曰 伊時廷臣 能有安金藏之忠乎 到今挾雜更提 抑何心腸乎 戊子 上御殿庭 行香祇迎禮 至孝章廟以下各廟香祝諸臣 以壓尊 不卽鞠躬上厲聲命陪參諸臣罷其職 仍命拿入兵曹判書及侍衛諸臣 下教若曰 嗚呼一隅青丘 卽朝鮮而已 貳君祇迎 諸臣焉敢不爲 吁嗟垂恩 今日諸臣 十年臣事者多 莫曰無心 無心二字 此等處豈宜恕乎 還御資政殿 召大臣諸臣於殿前 飭諭以俾知十年臣事之義 粵二日 行大政 又諭大小臣僚曰 嗚呼忍說壬午事乎 姿質美而予實不慈矣 庚寅御王府 教曰 追提往年事 使予聞之逆心也 甲午夏旱 親臨墓所 親製文行奠酌禮 世孫隨焉 顧教諸臣曰

今日當得甘雨矣 仍命贊禮以下隨駕近臣 賞賜有差 至丙申春 命政院日記及公家文蹟之自丁丑至壬午 事關不忍言之文字 幷洗草 教曰 聞世孫此疏特許其請 此時予心不堪傷惻 仍玉淚汎瀾 命書傳教曰 今予夙夜一心 在於宗國 今者此舉 寔爲沖子 嘴呼 壬午閏五月日記 思悼冥冥有知 必也飲涕以爲余將無恨云 其時日記 依實錄例 承旨注書 同詣遮日巖洗草 嘴呼 因予涼德 遭萬古所無之事 而末世人心浮囂 雖及見日記者 更提文字 則當以戊申梟獍餘種嚴懲 况他日乎 此後語及壬午事 當以逆律論 咸須聽此 莫犯邦憲 沖子旣承面諭 予將高枕矣 翌日 又命世孫往墓所 展拜行祭 教曰 畏思世孫今日之心 豈特冲子心 予心若何 今日用心 果生來初也 按宮園儀曰 丙申追上謚號曰莊獻 改宮號曰景慕園 號曰永祐 癸卯 追上尊號曰綏德敦慶 甲辰 又追上尊號曰弘仁景祉 廟中祭禮 降太廟一等 園儀亦準此 按行錄曰 有二男二女 長懿昭世孫諱某 次卽小子 御諱 女嫁光山金箕性 烏川鄭在和 有庶男三 祢禎讚 庶女一 適唐城洪益惇云 子孫錄 姑從舊狀 以待陟降之垂鑒

《純祖實錄》卷 16, 純祖 16年 1月 21日 辛丑 惠慶宮誌文

惟惠嬪 思悼綏德敦慶弘仁景祉章倫隆範基命彰休 莊獻世子之配 我寧考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之本生母也 寧考以英廟 命爲思悼兄孝章世子嗣 故寧考卽位 遵英廟遺教追尊孝章爲王 賢嬪爲后 奉之宗廟 示民不貳本 乃惟所生之義 至尊至大 追謚思悼曰莊獻 稱廟曰景慕宮 祭儀下宗廟一等 稱墓曰園 而進嬪宮號曰惠慶 恒言稱慈宮凡尊奉之禮 進獻之節 亦下大妃一等 於是國人 服寧考之孝 而事嬪擬於長樂者 四十年如一日矣 我聖上嗣服之十五年乙亥十二月十五日乙丑 嬪薨于昌慶宮之景春殿 春秋八十有一 大臣閣臣獻議 引宋程正公頤論濮園禮 上及王大妃服大功 中宮

服小功 王世子服總 有司攷謚法 聰明睿智曰獻 夙夜儆戒曰敬 遂上謚曰獻敬 明年丙子三月初三日 葬于莊獻之顯隆園 禮也 園舊號永祐 在楊州治之拜峯山 寧考已酉 以風水不叶吉 移奉于水原府花山癸坐之岡 改今號陵墓 追祔多同兆而異封 是園之法方中也 寧考命虛其左 爲合墳之制曰予之情事異於人也 至是因其制以相役 嘴呼 慄哉 上 以臣祖淳夙事寧考地又屬肺腑 命進幽宮之誌 而慈殿又書下行錄于廷 倘撰詞者 得以徵信 臣承命悸懼欲辭 而情又不敢 則乃拜手稽首而撰次焉 謹按嬪姓洪氏 系出安東之豐山縣 上祖之慶 高麗國學直學 自是世有顯人 入我朝 有諱履祥復大顯 官大司憲 贈領議政謚文敬 再轉而爲永安尉文懿公諱柱元 尚宣祖女貞明公主 高祖諱萬容 禮曹判書 謚貞簡 曾祖諱重箕 司僕寺僉正 贈左贊成 祖諱鉉輔 禮曹判書贈領議政 謚貞獻 考諱鳳漢 遭際英廟 官至領議政 謚翼靖 娶韓山李氏高麗韓山伯禡之後 觀察使凜之女 以英廟十一年乙卯六月十八日丙戌 生嬪于盤松坊外氏第 前夕 翼靖公夢黑龍蟠寢上 金鱗照耀 厥明嬪乃降 自幼孝友慈仁 莊重溫和 未嘗違父母志 甫四五歲 卽不出中門之外 戲嬉不事 不喜芬華 見同輩兒衣飾華麗 泊然無歆艷色 七歲貞獻歿時 外氏因婚而宴 或請與往觀 不肯曰 身有祖父服 何忍與吉事 其人以 七歲不受服 強之 婪曰 吾雖不受服 父親在縗絰中 不可赴也 聞者大奇之 癸亥 英廟爲莊獻擇配 婪方九歲 膚三揀 英廟命翼靖公 授小學內訓御製訓書等書于別宮 婪一聞輒通 其義記誦無遺 我寧考嘗語筵臣曰 我慈宮 自少凡耳目之所經涉 終身不忘 自宮中故事 以至國朝典憲 人家氏族 麻所不記 予或有所疑 未嘗不仰質 仰質未嘗不歷歷指教 聰明博識 予不敢仰企也 甲子正月 冊爲世子嬪 是月行嘉禮 朝見于英廟及仁元太妃貞聖后祥和之貌 渾然天成 進退周旋禮儀 棟棟六宮 觀者無不動色 三殿相賀曰 得此佳婦 國家之福也 既上奉三殿及嘆嬪 洞屬如不及 間寢必坐

而待曙 恪遵英廟訓誨 盡力履行 待諸翁主 友愛篤洽 諸主亦皆誠心輜輶
雖鄭致達妻之性狡難化者 不敢露纖芥之色 而嬪之所以推誠處之者 驏然
有餘裕也 [庚]午冬懿昭世孫生 未幾薨 三殿大傷疚 嬪恐其增戚也 進見之
際 色辭如常 至壬申九月我寧考誕降英廟喜甚謂嬪曰 汝以貞明之孫 嬪于
王家 今有大功於宗社 奇幸何可勝也 嬪愈小心恭慎 不敢自懈撫愛 寧考
極其慈恩 然教導必以義方 衣服飲食 務從儉約 勸學勉德 每以聖人爲期
我寧考邃學峻德 實由天縱 而蒙養之正 蓋有賴耳 及至庚戌大慶 睿齡已
近六旬 而保抱看護 不憚晝夜 殷勤劬勞 若寧考 初寧考每日 慈宮至誠
上格神明 有此邦慶 誕辰同日 天意豈偶然也 丁丑 貞聖仁元兩后 相繼禮
陟 嬪悲慕哀痛 九時哭泣 未嘗一闕 祭奠必皆躬執曰 不於此時 少伸微誠
何以報眷愛之恩也 自兩后之喪 內政無統攝 嬪嚴束宮人 不敢失舊規 奉
承英廟 尤致誠敬 英廟嘉賞不已 常稱孝婦 己卯貞純后入宮嬪執婦道如事
貞聖 既而二外家不相能(構)[構]釁日深往往事有至難言者 嬪恭怡遜默 和
氣藹然 宮中上下 至今悅服 以爲難也 壬午閏五月 莊獻薨 嬪抱穹壤之痛
懷宗社之憂 屏俟私第 不遠而復 則銜恩制義 鼾勉人世 祇見之日 和敬彌
著 英廟大感歎 手書扁曰 嘉孝堂 命揭寢室 由是思媚兩殿 導迪聖胤 茄
茶如甘 履艱愈泰 終乃措國本於磐石 垂令名於無窮 苟非至誠動天地 至
性盡人倫 則何以有此 嘴呼 偉哉 是年賜號惠嬪 丙申英廟昇遐 嬪號慕罔
極 哀毀過制 見者感動 寧考二年戊戌 進號孝康 七年癸卯 加上號慈禧
八年甲辰 加上號貞宣 十九年乙卯 以莊獻及嬪寶甲載回 加上號徽穆 二
月寧考奉慈駕 詣顯隆園 檻謁仙寢 還至水原府 行大宴禮于行宮 問高年
賜土庶米推恩 賦六十一歲及七十以上爵 上及百官 皆簪花入都 光輝之盛
簡牒所未有也 明年丙辰六月 寧考行內宴于迎春軒 命戚臣之與宴者 皆得
仰瞻 每歲誕日 必進饌以開慶 寧考常稱朱文公但願年年似今日之句曰 晦

翁先獲我心也 庚申六月 寧考開有司備饌 俄忽弗豫 竟至賓天 天乎冤哉
嬪以七旬之齡 遽嬰逆理之痛 崩寢冤酷 幾不能保 自此不復進常膳 惟以
粥飲度日也 今上服闋 將加上尊號 力拒之曰 吾遭庚申之變 而不死亦頑
矣 何忍受號 爲甲子以冊禮舊甲 上自內進饌 而命詞臣撰樂章及致詞 其
後又再行 八年之間 三舉是禮焉 乙丑元日 以寶齡望八廷賀 是月貞純后
禮陟 是時已及大耋 不能行步 猶哀慕如丙申 乙亥 以望九如乙丑禮 是秋
患痰眩 設議藥廳 彌月少瘳 遂撤直舉賀儀 未幾疾旋篤 及奉諱日 衣袵衿
冒 以至巾帷之微 皆嘗預具日 他日無煩民市也 嘴呼 盛哉 誕二男二女
長懿昭世孫 次卽寧考妃 卽今王大妃殿下父清原府院君靖翼公金時默 女
長清衍君主 下嫁光恩副尉金箕性 次清璿郡主 下嫁興恩副尉鄭在和 寧考
二男二女 宜嬪成氏生文孝世子 一女未周歲卒 今上殿下及淑善翁主皆綏
嬪朴氏誕生 中宮金氏父永安府院君祖淳 主下嫁永明尉洪顯周 今上一男
卽王世子 一女幼未封 嬪天姿愷悌 識慮高明 非禮勿動 處事惟慎 事莊獻
克敬克順 濟以箴警 莊獻甚敬重之 時有諮議 多所裨補 厥或違忤 從容理
奪 關雎鍾鼓之樂 近代罕比 己巳以後 莊獻受命代理 則深存憂懼 十四年
間 審[幾]察微 彌綸調護者 百千其方 寧考每與筵臣 語及當時事 未嘗不
慙然改容也曰 慈德慈功 外人何以能盡知也 孝純后宮人 有竊毀莊獻法服
者 事覺 宮中悚慄 將聞於上 后大感其人 自分必死 嬪和顏謂后曰 下輩
無識 卽何足責 願勿感也 戒宮人無敢洩 不令上知之 后終身感德之 而后
家人道此事 至有泣下者 德性之寬和如此 國榮之稔惡也 納其妹於宮中
號爲元嬪 覩覩匪分 中壺幾危者數 逆折奸[萌] 極力保護 終底於安泰 而
宮中事秘 莫有知者 故不逞之人 反倡邪說 以爲 中壺之瀕危 慈宮有力焉
嘴呼 其謂天可誣也 已是不可以不辨也 莊敬之心 至老不已 奉先之誠 根
於天性 故恒居必早御盥櫛 齊整端肅 雖末疾沈篤之時 尋常昏曠 亦皆侍

奉貞聖貞純兩聖母之語 而至英廟誕辰 夜中命侍者 扶起而坐曰 今日行真殿酌獻 吾何敢偃臥乎 時不能轉側者 已有日矣 今上克繼寧考之志 奉養如昔日 兩宮慈孝 融融洩洩 而上每過宮則喜溢于色 必設饌以勸也 常以不得日日見爲恨 及大漸之朝 上 侍側而已 不能省矣 嘴呼 痛哉 臣竊伏惟念日月之光 非摸[畫]可得 瀛海之深 非測蠡可窮 然今臣之所述 非臣之所敢揄揚也 英廟而爲之舅 寧考慈殿而爲之子若婦焉 二考 堯舜也 慈殿任姒也 聖人而嬪其婦 聖人而顯其親 言可以耀千秋 行可以爲萬世 則又何加焉 若夫正壇儀於貳極 啓長發之嘉祥 天也 居其實 無其名 巍巍乎有而不與 亦天也 天之所作爲 非人之所敢知也 雖然 有恤闕宮并宗廟而饗之 於千萬年 本支昌熾 聖子神孫 繼繼繩繩者 皆嬪之德之功之賜也 豈曰不顯 又誰曰不然 嘴呼 盛哉 嘴呼 痛哉 [檢校提學金祖淳製]

건릉(健陵)

1. 연혁

능 주 : 정조(正祖)와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

위 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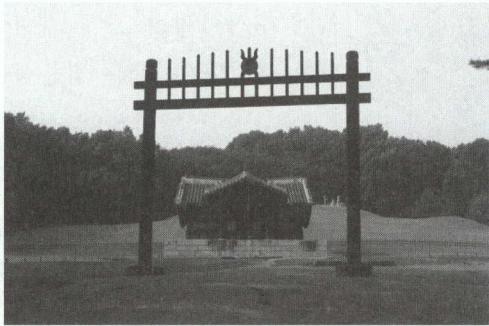
봉릉연대 : 1800년(순조 즉위년)

전릉연대 : 1821년(순조 21)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 오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병점역 앞 사거리에서 한신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84번 국지도를 타고 약 10분 정도 달리면 용건릉 입구에 도착한다. 용건릉은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 쉬우며, 부근에 원찰인 용주사가 함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과 함께 둘러



건릉 원경

보는 관광 코스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온다.

융건릉은 조선 21대 영조의 둘째 아들이며 사도세자로 잘 알려진 정조의 아버지 장현세자(추존 황제 장조)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현경의황후)가 잠들어 있는 융릉(隆陵), 정조와

그의 비 효의왕후 김씨가 잠들어 있는 건릉(健陵)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관리사무소를 지나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건릉에 도착한다. 건릉은 조선 22대왕 정조와 그의 비 효의왕후 김씨의 합장릉이다. 처음에는 정조의 유언대로 융릉 동쪽의 두 번째 언덕에 안장되었다가 이후 풍수지리상 좋지 않으므로 길지를 찾아 천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여러 길지를 물색하던 중, 정조의 비 효의왕후 김씨가 승하하자 순조 21년인 1821년 현 위치인 현릉원 서쪽 언덕에 이장하여 효의왕후와 합장해서 오늘날의 건릉이 되었다.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순조 즉위년인 1800년에 묘호를 정종(正宗)으로 했다가 1899년(광무 3) 12월 19일에 다시 묘호가 정조(正祖)

로 바뀌고,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宣皇帝)가 되었다.

건릉은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의 참도가 특이하다. 1단이 높은 참도만이 아니라 좌우 양



건릉 정자각



건릉 장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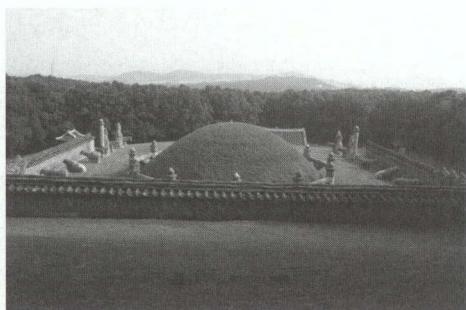
쪽에 정자각까지 넓게 박석을 깔아 놓았다. 건릉은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둘렀으며 그 밖의 모든 상설은 융릉의 예를 따랐다. 그래서 합장릉인데도 상석을 하나만 놓았고, 방향표시를 위해 난간석주에 문자로 십이지를 표시한 것이 보

인다. 팔각장명등은 둑근 향로와 같은 기단부 위로 잘룩한 허리에 안상이 있고 혼유석에는 면마다 둑근 원을 그리고 매난국(梅蘭菊) 무늬를 새겼다. 문인석과 무인석은 사실적인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정시대 문물제도의 발달을 잘 보여준다. 문, 무인석은 등신대에 가까우며, 특히 입가에 미소를 띤 모습이라 여유가 있어 보인다. 문인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입고 있다.

이 밖에 3면의 곡장과 상석, 석마 2쌍, 망주석 1쌍이 배치되어 있다. 정자각 외에 수라간, 망료위, 재실, 비각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각에는 1800년 초장 때 김재찬이 지은 능표비와 1900년 황제로 추존될 때 고종이 세운 능표비 2기가 안치되어 있다.

3. 능주 소개

정조(正祖)는 1752년(영조 28) 9월 22일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현세자(일명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산,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이다. 1759년에 세손에 책봉되고, 아버지 사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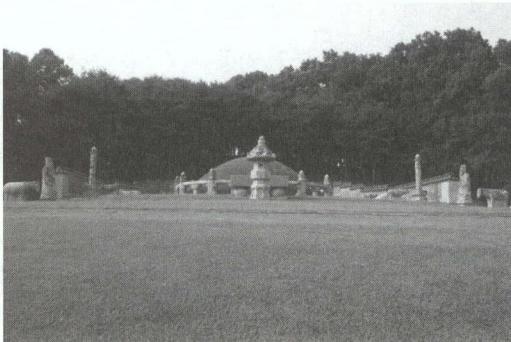
뒤에서 바라본 건릉

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자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뒤에 진종으로 추존)의 후사(後嗣)가 되었으며, 영조가 승하하자 1776년에 왕위에 올랐다.

세손 시절인 1775년부터 대리 청정을 하다가 다음해에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생부인

사도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또한 세손 시절에 갖은 위험속에서 홍국영(洪國榮) 등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즉위 후 호학(好學)의 군주로, 퇴색해버린 홍문관을 대신하여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기성의 인재를 모으고 참신한 인재를 양성했다. ‘우문지치(右文之治)’와 ‘작성지화(作成之化)’를 규장각의 2대 명분으로 내세워 한편으로는 기성의 인재를 모아들일 뿐만 아니라 참상(參上) · 참외(參外)의 연소한 문신들을 교육하여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고,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했으며 세손 때부터 추진한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수입에 노력하며 서적의 간행에도 힘을 기울여 새로운 활자를 개발했다. 임진자(壬辰字) · 정유자(丁酉字) · 한구자(韓構字) · 생생자(生生字) · 정리자(整理字) · 춘추관자(春秋館字)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왕조 초기에 제정, 정비



건릉 근경

된 문물제도의 보완·정리를 위하여 영조 때부터 시작된 정비작업을 계승, 완결했다.

『속오례의(續五禮儀)』·『증보동국문현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을 편찬하고 자신의 저작물도 정리하여 뒷날 홍재전서(弘齋全書)로 정리·간행하게 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당쟁에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고 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시행했다. 1788년(정조 12)부터 그간의 양척신당에 비판을 가해온 청류를 끌어들여 준론탕평정책(峻論蕩平政策)을 취했다. 기존의 노론 우위의 정국에 변화를 일으켜 왕권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정조는 남인에 뿌리를 둔 실학파와 노론에 기반을 둔 북학파 등 제학파의 장점을 수용하고 그 학풍을 특색있게 장려했다.

정조는 학문적으로 남인학파와 친밀했고, 그의 학자적 소양으로 인해 노론 중 진보적인 젊은 자제들이 형성시키고 있던 북학사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북학파의 종장(宗匠)인 박지원의 제자들을 규장각의 검서관에 등용했고 이들이 주장하던 서얼통청운동(庶蘖通清運動)에 부응했다. 또한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되어 정치문제로 되고 있던 서학(西學)에 대하여 정학(正學)의 진흥만이 서학의 만연을 막는 길이라는 원칙 아래 유연하게 대처했다.

문화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중인 이하 계층의 위항문학(委巷文學)도 적극 지원했다. 이 밖에도 『일성록(日省錄)』의 편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편찬, 장용영(壯勇營)의 설치, 형정(刑政)의 개혁, 궁차징세법(宮差徵稅法)의 폐지, 노비추쇄법(奴婢推刷法)의 폐지, 『천세력(千歲曆)』의 제정 및 보급, 통공정책(通共政策)의 실시 등 많은 치적을 남겨놓았다. 정조는 당쟁의 희생물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온갖 정

성을 다해 조영하고, 수원에 성까지 새로이 수축하여 유수경(留守京)으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정조의 재위기간 동안은 그의 학자적 소양에서 기인하는 문화정책의 추진과 선진문화인 건릉문화의 수입이 자극제가 되어 조선 시대 후기의 문예부흥기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조는 1800년 6월 28일 보령 49세로 승하했다.

저음에는 그의 유언대로 융릉 동쪽의 두 번째 언덕에 안장되었다가 이후 풍수지리상 좋지 않으므로 길지를 찾아 천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여러 길지를 물색하던 중, 정조의 비 효의왕후 김씨가 승하하자 1821년(순조 21) 현 위치인 현릉원 서쪽 언덕에 이장하여 효의왕후와 합장해서 오늘날의 건릉이 되었다.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순조 즉위년인 1800년에 묘호를 정종(正宗)으로 했다가 1899년(광무 3) 12월 19일에 다시 묘호가 정조(正祖)로 바뀌고,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宣皇帝)가 되었다.

효의왕후는 청풍김씨로 청원부원군 김시점의 딸이다. 영조 38년 10세에 간택되어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정조 즉위와 함께 왕비에 책봉되었다. 평소에 효성이 지극해 시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지성으로 모셨다. 1821년(순조 21) 준주 69세로 승하하여 정조와 함께 건릉에 합장되었다. 건릉은 원래 정조의 유언에 따라 장현세자의 묘인 현릉원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1821년(순조 21) 효의왕후의 능침을 정하면서 풍수지리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현 위치인 서쪽 언덕으로 이장되었다. 능호를 정릉(靜陵)이라 했다가 건릉에 합장되면서 능호를 따로 쓰지 않았다.

4. 건릉구표석음기

朝鮮國

正宗大王健陵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崇禎紀元後一百二十五年壬申九月二十二日
誕生 己卯冊封王世孫 乙未聽政 丙申卽位 庚申六月二十八日昇遐 十一
月初六日 葬于華城顯隆園東第二岡亥坐之原 在位二十四年 壽四十九

5. 건릉천릉표석음기

朝鮮國

正宗大王健陵

孝懿王后祔左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崇禎紀元後一百二十五年壬申九月二十二日
誕生 己卯冊封王世孫 乙未聽政 丙申卽位 庚申六月二十八日昇遐 十一
月初六日 葬于華城顯隆園東第二岡亥坐之原 在位二十四年 壽四十九 辛
巳九月十三日 遷奉于園之右麓子坐之原 妃睿敬慈粹孝懿王后金氏 崇禎
紀元後一百二十六年癸酉十二月十三日誕生 壬午冊封世孫嬪 丙申冊封王
妃 庚申今上嗣位 尊爲王大妃 辛巳三月初九日昇遐 九月十三日 祔葬于
健陵而同封 壽六十九

6. 건릉표석음기

大韓

正祖宣皇帝健陵

孝懿宣皇后祔左

正祖敬天明道洪德顯謨文成武烈聖仁莊孝宣皇帝開國三百六十一年壬申九月二十二日誕生 己卯冊封王世孫 乙未聽政 丙申卽位 庚申六月二十八日昇遐 在位二十四年 壽四十九 十一月初六訖葬于華城隆陵東第二岡亥坐之原 辛巳九月十三日遷奉于陵之右岡子坐之原 光武三年己亥追上尊號敬天明道洪德顯謨 十一月追尊恭上諡號曰宣皇帝 廟號曰正祖 后莊徽睿敬慈粹孝懿宣皇后金氏開國三百六十二年癸酉十二月十三日誕生 壬午冊封世孫嬪丙申冊王妃 庚申純祖嗣位尊爲王大妃 辛巳三月初九日昇遐 壽六十九 九月十三日祔葬于健陵而同封 光武三年己亥追上尊號莊徽 十一月追尊恭上諡號曰宣皇后 敬書前面與陰記庸伸小子之微忱焉 光武四年 月 日

7. 건릉지

《正祖實錄》附錄 正祖大王健陵誌文

我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在宥十有三年己酉 遷顯隆園于水原府之花山 揭御眞于園之齋殿 以寓晨昏之義 大城厥邑 以拱衛象設 歲一謁 輒涕泣不能起 及庚申春正月 旣拜園 遂御東麓 啟然歎曰 美哉 斯邱 守臣汝其伐石以識之 粵六月十一日壬戌 有疾不豫 二十八日己卯 禮陟于昌慶宮之正寢 將以十有一月六日甲申 因東麓面南而大葬聖人焉 嘴呼 岂非天

哉 今殿下 以臣行恁 最被殊遇侍軒墀日久 命臣以玄宮之志 臣頑然不能
下從 忍執斯役 而學術譖薄 不足以知聖人 則天地之大 日月之光 其敢曰
摹畫萬一云乎哉 鳴呼 道之大原 出於天 而天生聖人 爲之君爲之師 以弘
道於天下 伏羲黃帝堯舜禹湯文武是也 惟孔夫子不得其位 而刪詩書作春
秋 行素王之事 夫子歿百有餘年 孟氏出而明天理淑人心 以接夫子之統
自秦漢以來 異端橫流 正學遂泯 及宋程朱相繼而興 講明先王之道 繼往
聖開來學 其功不在孟氏下 程朱既遠 邪說又作 衆口爭懥 魤所準式 天開
奎運 吾道遂東 我先王正位凝命 以君兼師 德尊而行備 學崇而業廣 主敬
以立其本 窮理以致其知 知有以窮性命之奧 而達造化之原 仁有以同萬物
之體 而普天下之公 勇有以克有我之私 而成悠久之業 嚴恭寅畏 不敢荒
寧 彪恩厚澤 延及群生 煙嫋覆育 熙熙穰穰 庶幾乎三古之氣像焉 蓋天以
我祖宗積德累仁 克昌其後 爲之含弘亭毓 篤生聖人 啓東方一治之運 而
遺風餘庥 將萬億年是賴 於乎 盛哉 遂拜手稽首 技血而書之石 曰王姓李
氏 諱祿字亨運 英宗顯孝大王之孫 思悼莊獻世子之子 母惠嬪洪氏 領議
政鳳漢之女 妃金氏 贈左議政時默女 先是 王伯父孝章世子 聘左議政趙
文命女 早薨無子 及莊獻薨 英宗命以王承孝章統 王卽阼 尊孝章爲真宗
妃趙氏爲后 立莊獻廟曰景慕宮 尊惠嬪曰惠慶宮 始莊獻世子夢見神龍入
寢 覺而異之 畫其狀於壁 王乃以壬申九月二十二日己卯誕降 嘩嘩之聲
若巨鍾然 神彩燁如日月 穆穆有天人之表 二歲知文字 三歲就傳受小學書
睿智日長 不煩師承 八歲冊爲王世孫 十歲齒于學 拄小學題辭明命赫然之
義 問于博士曰 明命在吾身 果指何境 欲求赫然 當下何工 博士不能對
圜橋門觀者 無不動色相賀曰 賞聖人也 其在春邸 日與賓僚相問難 如四
七之辨 中和之說 性道之已發未發 縷析毫分 皆可爲斯文定論 及夫大猷
時升 年德俱進 仁精而義熟 教成而化敷 則觀乎御定諸書 而積中彰外之

文 尚可得其一二焉 推王跡之所興 演景錄之無疆 以貽我子孫萬世之柯則
曰國朝寶鑑也 皇祖有訓 淚泣以受 別嫌明微 得盡我所得爲 曰宮園儀也
煌煌鉄鍼 掃除奸兇 義闡乎金縢 象列乎夏鼎 樹倫綱於千秋 曰明義原續
之編也 虞廷五教 慎德允元 曰五倫行實之書也 邁慾存理 尊王黜霸 曰鄒
書敬選也 雲龍風虎 蔚焉合章 息號暮夜 有戎勿恤 曰軍旅大成也 休老勞
農 秩然有序 風流篤厚 百嘉鬯遂 曰鄉禮合編也 稽古酌今 序列六官 燦
然爲一王之制 以昭來許 曰大典通編也 由博反約 常目存茲 追刪述之遺
旨 曰五經百篇也 甲乙丙丁 元元本本 攢英摭實 縱橫丹鉛 曰經史子集手
圈也 刪繁蕪正 體裁嚴華夷寓衰鉞 曰宋史真詮也 詩道教人 詠歎淫液 錄
然如舜韶之九成 曰雅誦也 地負而海涵 家戶而戶祝 言有教動有法 揭斯
文之一統 曰朱文諸編也 聖作而賢述 貞衍而丘補 纂次部分 垂經世之要
範 曰大學類義也 顯忠崇節 載棹載楔 馬城之祠 龍灣之壇 義問宣昭懷我
好音 曰尊周錄也 制禮以節事 修樂以道志 曰春官通考也 其難其慎 曰維
庶獄 廣五聽之慈 布三宥之澤 曰秋官審理錄也 此王之立言而鴻號鉅跡
聲流無窮 可以撰次風雅 被諸管絃 與旱麓生民之詩 同其傳也 其窮格之
精 存養之密 又有濂闈諸賢之所未發者 論太極則曰 太極在天地之先 而
不爲先 在天地之後 而不爲後 靜爲動之根 柔爲剛之本 易曰 一陰一陽之
謂道 又曰 闔戶謂之坤 又曰 生生之謂易 先陰後陽 生生之義見矣 商易
首坤 蓋有以也 論心性則曰 言心自禹謨始 言性自湯誥始 而孔子曰性相
近也 又曰 繼之者善 遂分形而上下而言 宋儒所謂本然之性也 氣質之性
也 蓋祖於此 聖遠言涇 言性者不惟不言善 或曰惡 或曰善惡 而本然大中
之體 無以闡發於後世 則首言性善孟子 蓋亦不得已也 程叔子又繼而明之
俾入人者 知有本然之性 而本然則皆純善也 然而徒知本然之爲純善 而反
遺乎氣質者 往往有之 如孔子後於孟子 不可不言本然如孟子 而在今之世

者 又將言氣質 予以是知孔孟之訓 隨時而不同焉 論格物致知則曰 知之未至 由於理之未窮 究此理也 物格在其中 曰致曰格 雖不可以相混 亦不可以相離也 論涵養省察之工則曰 涵養要熟 省察要疾 要熟也故既曰戒慎 又曰恐懼 不憚其重言而複言 要疾也故 一言以蔽之 使人專心乎體察 論幾微則曰 誠無爲 何也 未發也 幾善惡之所由分 而所謂動之微也 既曰動之微 則豈非已發耶 論知行則曰 知行不可偏廢 而所謂真知者 知善之可爲也 惡之不可爲也 如飢食渴飲 水不可蹈 火不可狎 是謂真知 知則可以行耳 知固貴真 而其求知也亦宜擇術焉 論謹獨則曰 心爲天君 欺心卽欺天也 天可欺乎 天德王道 其要祇在謹獨 論闢邪則曰 戎狄膚而已矣 龍蛇驅而已矣 正學明邪說自熄 此所以董之以威 開自新之路也 論李延平 靜中體認未發之旨 則曰 體認則思也 思則已發 夫人之心 湛然虛靜 無偏倚而後 應事不差 靜時若不主敬 發使能中節 譬如十月純坤 陽氣斂藏 霜雪凝沍 草木凋落 陽雖生於下 而隱而未露 春來發生之功 專資於斂藏凝固 周子之言靜 程子之說敬 皆此理也 論誠仁之訓則曰 仁爲心之德 誠爲行之實 夫人之生也 且天地之理 故滿腔皆生意也 生意既發 自赤子入井 以至於仁民愛物 覆冒四海 而罔不自此焉推之 曷嘗有私意利欲 間乎其間哉 無私意利欲以間之則一矣 一則誠也 仁與誠 岳有二也 論爲治之法則曰 君人者 但恥不及乎三代 使動植之物 風雨霜露之所霑被者 皆得其所 而休徵嘉瑞 如麟鳳龜龍諸福之物 爲我能事 如此然後 始可謂位育之極功也 論文章則曰 文章有道術 道不可不正 術不可不慎 必主之以理 而輔之以氣 使潛默曠引之神機 不敢離正路一步 可免於侈言夸辭之歸矣 夫汪洋河漢之談 不足以垂後者 詛於理也 藻繪雕篆之作 不足以名家者 薄于氣也 況治教爲之汙隆 而世道隨以升降者乎 予以朱書爲一世之學的者 不惟尊其道 亦爲其文章理氣之真也 此王之立德 而可以見爲學用工之次序 鑽彌

堅仰彌高 宗廟百官之盛 金聲玉振之美 集衆之粹 會聖之精 爲萬世開太平 荷非達天德者 誰能與此 王 每朝起整衣 北面瞻仰辰極 雖盛暑 臥則閉戶不敢對天 四十年如一日 詩所云 小心翼翼 昭事上帝 王實有焉 事英宗至孝 十年侍疾 未嘗解帶 及宅宗 哀動臣隣 踔桓王於原廟 樹莊寢之配壇 奉慈殿慈宮 婉容愉色 致其養 玉牒金泥 揚其徽 詩所云 有孝有德 以引以翼 王實有焉 王之代理也 戚黨憚王英明 內外危逼 勢如綴旒 王 從容應變 處群不逞 曲當其宜 及宰臣徐命善之疏出 英宗誕定大策 卒畀王機務 則王首陳私痛 泣而請 寧考感其孝 就尚書記注 刊其不忍者 践位之日 漢發絲綸 致嚴乎不貳本之義 胥匡以遵先王之道 而有頑不率 鼓倡凶論 則告于寧考之靈 裁竄如法 書所云 四罪 而天下咸服 志所云 聖人處變 而不失其正 王實有焉 所慎在祀 肅雋齊明 攝儀無間乎親裸 疏節克謹乎縡文 凝神致虔 坐而待朝 陵園有事 輒進粉全以嘗之 拜影殿戒蹕 先於曉鐘 霧露風雪 未始或闕 月觀闕宮 優然有終身慕 而至痛在心 每諱辰必浹旬齋居 若喪之初 詩所云 春秋匪懈 享祀不忒 王實有焉 優優三千克昭節文 葬寧考則正朝祖之失禮 嗣寶位則慨釋冕之非經 名儒享夫子之廡 大老配先祖之庭 經所云 禮者履也 義者宜也 王實有焉 有庶弟祔禎礪而祔坐逆當誅 神人所不容 猶不忍加辟 并家室移置江華 命內府衣服飲食之極其豐足 間訊織於路 歲輒召見 廷臣爭之力 王曰 吾過矣 吾過矣 終不聽 祔於英宗時 謫死耽羅 王追念畵然 錫美諡 臨其廟親奠之 祔爲凶徒所推載而死 王每歎曰 祔之死 由於洪國榮 國榮之廢 所以報也 予於異日有媵御舉丈夫子 必爲禎立後 英宗女有爲鄭致達妻者 挾其子厚謙與逆臣洪麟漢 當王代理時 謀危宗社 而賴王大妃聖德神功 炳幾折萌 凶謀不得售 而廷討遂行 王 以其爲英宗所鍾愛 暫流畿島 自島而陸而京 至引入大內見之 廷臣亦爭不得 傳所云 不藏怒焉 不宿怨焉 王實有焉 慎乃儉德

維懷永圖 器無彤鏤 衣有澣濯 綿褥蒲茵 處之裕如也 所御之堂 僅數架
不施丹輅 憫壁烟煤如塗 有司請葺理 則王曰 予豈惜其費乎 顧素性安此
耳 經所云 克勤于邦 克儉于家 王實有焉 性豁達 待人一以誠 胡越一家
庭衢八荒 蝶涓之暇 會朝之時 表裏無間洞然無不可 對人言者 嘗自號以
萬川明月主人翁 大書特書 昭揭殿閣 經所云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實有
焉 際天之所覆 極地之所載 摠以攬之爲己分之所有 而星曆兵農九流百家
罔不包羅搜剔 措諸實用 又推以及人 妙選年富文學之臣 考課講製 日月
琢磨 有如群飲于河 各盡其量 而不見其涯涘 詩所云 肆成人有德 小子有
造 王實有焉 右賢而左戚 屏宦官宮妾而接賢士大夫 置奎章之署 常引諸
學士 講論經史 及至大漸 諱御猶不敢近 而承彌諸臣 左右舉扶 嘗有人言
士類國之狀斧者 王曰 謂士類狀斧 而國其父乎 予所共者 士類也 斥其人
不用 詩所云 濟濟多士 文王以寧 王實有焉 與諸臣 觴于芙蓉之亭 篁几
既肆 琴瑟旣張 有燕巢樑將哺子 飛繞不入 王憐之遂起 後御是亭 輒問燕
巢 常曰 吾不欲以養人者害人 遂蠲雉鮮之貢 侵鹿豕之獵 經所云 人不易物
惟德其物 王實有焉 一念黎元 蚊夜孜孜 犝隱不察 犝弊不舉 損上益
下 撫之綏之 利澤之滲漉人者 浸灌醜郁 久而愈著 而猶且視之 如傷 恐
一物之不獲自盡 頒珍劑以救病 傾廩財以掩骼 因內帑而別儲備荒之需 設
壯營而擬罷均役之法 以至庶孽之甄拔也 奴婢之勿世也 耀耀之更張也 蓋
欲次第施措而未遑 然其已然之効 則市廛之民曰橫索絕矣 在野之民曰積
案清矣 輸將之民曰羨耗除矣 嘉肺之民曰幽冤洗矣 都鄙之民曰田疇墾矣
筦庫之民曰出納允矣 衣冠之民曰菁莪棫樸之化 不知文王何如也 於是乎
三元調八風協 嘉瑞降豐年應 曖然如春 油然如雨 恬然如在光天化日之中
而及夫昇遐日 自夫王宮國都 以至荒徼絕塞 深山邃谷男婦稚老 岐踵喙息
之倫 率皆奔走號哭 如不欲生 詩所云 群黎百姓 偏爲爾德 王實有焉 此

王之立功 著之八域之廣 而嵬嵬蕩蕩民無能名者也 若其酬酢萬變 折衷義理 充養發揮 剛健純粹 無所容乎人欲之私 而有以全夫天理之公 研窮經傳之旨 則提綱而挈領 辨別事爲之故 則銖量而錙較 是以綸告筵諭 動合典謨 矯時正俗 彰善瘅惡之志 哀矜惻怛 于末命 有足以透金石而感豚魚 則非言語文字所由述也 詈曰 子所願學孔子也 學孔子 當自朱子始 既倣朱子綱目 定春秋左氏傳 將建閣御苑之中 妥朱子遺像 取大全語類群書箋注之出於朱子者 編以爲書 序其中而不及行焉 居常無樂乎南面 慨然有脫屣千乘之想 朝廷請加徽稱者屢 終不許 築華之役 蓋有微意存焉 故堂曰老來 亭曰未老闊 而卒不能假我數年 倩千古帝王所未有之盛節 不得見於當世則天也 呴呼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 蓋謂聖人之所以配天也 維天之命 於穆不已 蓋謂天之所以爲天也 陵號曰健 取諸天行 不其然乎 自羲農至文武 功烈見於事 自孔孟至程朱 功烈見於言 其範圍天地澤利萬世 則言與事 未始不同 而易地則皆然也 王 聖人也 發明斯道之體 主張斯道之命 其事則羲農文武 其言則孔孟程朱 千世之下尙論者 庶幾乎登清廟之瑟 愀然一唱而三歎 特撮其天德王道 布濩人耳目者 以揭夫宏儒哲辟之憲度章程 如此云爾 [尹行恁吏曹參判製]

《正祖實錄》附錄續篇 正祖大王健陵遷陵誌文

嗚呼 我烈考正宗大王 旣大葬于華城顯隆園之東麓 是曰健陵 國人之有識慮者 皆竊憂其地淺夷 非聖人安久之藏 後二十二年辛巳三月九日己未我孝懿王后薨 將筮兆于先陵 領敦寧府事臣金祖淳 上疏極言陵地可憂狀 請精擇吉土爲萬年之圖 我殿下涕泣下批曰 大行大妃 平日以是大憂 屢下教於小子 今見卿疏 益不勝摧咽悶悚 卽召大臣卿宰廷議之 議僉同無貳 遂命大臣禮官及敦匠之臣 廣行相視 又使再三覆按 乃得顯隆園之右坐子

之岡 爲尤吉治 方中爲同穴之制 緬奉先王 而后祔焉 陵仍舊號 實是年九月十三日庚申也 於是國人又皆太息相慶曰 誠舊陵之爲憂 而華固先王之志 今而後兩無憾矣 始先王十三年己酉 遷永祐園于水原府之花山 更號顯隆 大築華城 以拱衛象設 揭御真于園之齋殿 以寓晨昏之義 歲輒展謁 哀慕不自勝 十九年乙卯 奉慈宮 謁于園 還御華宮 進爵上壽 教曰 以予孤露 行是禮於是地 至願粗伸矣 每拜園 駕還 駐蹕遲遲之臺 回瞻夷猶 不忍發去 命華宮之堂曰老來 樓曰新豐 蓋有微意存焉 無樂乎南面 殆將脫蹤千乘 而獨拳拳于華者如此 是則孟子所謂大孝終身慕者也 今者復臨灤水之朝 而及窻以度 又在於華 是又天之所以大感于我先王 而此與之宅也 亦惟我殿下類孝之至 永綏我烈考文母也 於戲其盛矣 殿下 以臣象奎 獲事先王 又今備官太史 命爲玄宮之誌 誠惶恐不敢當 竊伏以爲我先王盛德 至善 冒溢區宇 史不勝書 諦于永世 無待幽石之紀纂 而天地之大 日月之光 又非如臣淺陋所可摹象 然而稽于記 孔子之喪 公西赤爲志 志者 謂志識也 是不過志識其地 重實不在於文 謹拜手稽首 泣而敬書曰 王姓李氏 謹禱 字亨運 英宗顯孝大王之孫 思悼莊獻世子之子 母惠嬪洪氏 領議政鳳漢之女 及莊獻薨 英宗命王 嗣孝章世子 王之伯父也 王卽阼追尊孝章爲真宗 墓爲永陵 嬪趙氏爲孝純王后 豐陵府院君文命女也 上號思悼曰莊獻 墓曰永祐園 廟曰景慕宮 尊惠嬪曰惠慶宮 莊獻世子嘗夢神龍抱珠入寢 覺而畫其狀於壁 已而誕王 英宗二十八年壬申九月乙卯也 聲覃訏謐聞 隆準海口 質相特異 英宗臨視喜甚 手撫額曰 是絕類我 卽日定號爲元孫 未百日而能立 甫能行步 坐必端跪 自未語見文字則輒喜 三歲就傅 受小學書 八歲冊爲王世孫 陪英宗駕過雲從街 許士民仰瞻世孫 還宮問曰 今日百姓觀者甚衆 亦知望於汝者 何事乎 王對曰 望臣之爲善也 曰 爲善易乎 對曰 易也 英宗大喜 十歲齒于學 請業于博士 問小學題辭明命赫然之義

曰 明命在吾身 指何境 欲求赫然 作何工 博士不能對 圜橋門觀者數萬動色相賀曰 真聖人也 壬午秋 英宗 命依皇朝時事 以世孫爲東宮 置兩坊官 賛善宋明欽 應召入對 王 講孟子 明欽仰問孟子宗旨 王曰 遏人欲存天理也 明欽請問立志 王曰 所願則堯舜也 明欽退語人曰 聰明英睿 上智之姿也 一日侍坐英宗 講官有言三南饑民菜色狀 王聞之 是日夕餚 舍肉不御 英宗問其故 對曰 適思饑民 心惻然自不忍下箸也 王 自八九歲 益莊默無疾聲遽色 罕與宦妾語 英宗每教曰 世孫絕無一毫走作意 禁苑花發非從予 未嘗一往遊賞 日靜坐讀書 此豈勉強可爲 卽其天性然也 英宗寶齡益高 寢多違豫 王 十年侍疾 畫夜未嘗離側 衣不解帶 少有添劇 則遑遑憂灼 涕泣露禱 坐臥起居 躬自扶護 英宗悶其猝也 或命左右代之 旋蹙曰 未若我孫之便吾體也 和緩主 王之姑也 其子鄭厚謙 倚主橫甚 洪鳳漢之弟麟漢 席其兄而爲相 英宗倦勤 兩兇 相糾結植黨 與貪權玩法 壞亂朝政 獨憚王英明 出入窺伺 謀欲誣毀動搖之 主又長處宮中 爲其子助兇 王從容處變 夷然若無事 英宗疾益彌留 欲使王代理機務 諸賊益懼 英宗命公事 入于東宮 麟漢揮手止承旨勿書傳教 游辭力沮之 英宗竟罪麟漢等 命王代聽庶政 遂幸東宮受賀 設九爵禮 群臣皆呼千歲 英宗顧笑甚樂 王既聽政 卽上疏陳私痛 言甚哀切 英宗覽疏泣 取起居注 丁丑至壬午 凡語屬不忍者 洗其草 教曰 正宗統爲三百年宗國 洗日記 伸子心於萬世也 乃製諭書 書孝孫二字 鑄銀印授于王 自是諭書銀印 凡朝會動駕 常陳于前 及英宗大漸 王 水漿不入口 哭不輟聲 旣成服 王曰 迫於群情 忍將踐位而冕服行禮 於予心益覺恍然 此禮見於康王之誥 蘇軾譏其非禮 亮陰之制雖不得行 釋衰從吉 其可乎 群臣以古禮與國制力請 王 泣而從之 旣嗣位 釋冕反喪服 大諭中外曰 寡人 思悼世子之子也 先王爲宗統之重 命予嗣孝章世子 禮不可不嚴 情亦不可不伸 享祀之節 宜從祭以大夫之禮 而不

可與太廟同 惠慶宮亦當有京外貢獻 而不可與大妃等 不逞之徒 藉此而有追崇之論 先王遺教在焉 當以當律論 以告先王之靈 其尊奉莊獻 遵宋濮王故事 祝式用朱子定論 稱皇叔父從子 五享用牲用樂 惠慶宮凡四進冊號 曰 禮或近於貳尊 拂義任私 强欲崇奉 非吾所謂崇奉也 前史皇子公主之錫號 本朝順康昭寧之加號 無貳尊之嫌 有揚名之義 予所以義起而行之也 金尙魯之爲相也 陰結後宮文氏 始構壬午之禍 英宗嘗教王曰 尚魯 汝讎也 乃追施逆律 王之在春邸也 趙載翰等 托壬午懲討之義 因閹人 聞于王 王 察其姦而心惡之 及大喪 李德師又上疏 如載翰之說 王曰 此誣先王之逆也 乃誅載翰德師等 大行因山期至 王 欲隨輦行 群臣以毀疾請止 且言古無是禮 出辭於城外 靈駕既遠 猶佇立瞻哭 哀音上徹 聞者莫不雨泣 魂殿小祭祀 必皆躬行 值忌辰 齋沐悲慕 二十年如一日 每謁太廟 至十三室 鞠躬磬拱 儒然肅然 若有見於位者 每朔望 將五鼓必拜真殿 風雨寒暑 未嘗或闕 於景慕宮 垣建日瞻月觀之門 簡輿衛 無時展省 每年五月十三日至二十一日 彌旬齋居 事貞純大妃惠慶宮 三朝愉婉 先意承歡 志物備盡 誠孝兩至 每日 國有大小事 予未嘗不稟慈聖而行 惠慶宮患癆 畫宵焦憂 親自熬藥 傷之手爲之腫而不覺也 嘗有疾 淖月始平復 群臣請賀 王曰 不存无妄之戒 久貽惟疾之憂 是誠自訟 敢受賀乎 群臣屢請晉號 王曰 上號之請 曾謂卿等不如林放乎 禮固緣情 義以制禮 千載之下 庶有知予志者 終王之世 群臣不敢復以爲請 記曰 踐其位行其禮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 其王之謂乎 賜洪麟漢鄭厚謙死 誅其黨沈翔雲閔恒烈洪相簡等 三司請孥籍鱗厚 教曰 法者天下平 雖人君不可以私意低昂 斷死罪 未死而結案 死而準律文 卽常典 自今未結案而用逆律 已死而追施孥籍 次律結案而加以極律 紘除之 盜入慶熙宮 索之不獲 及移御昌德宮 盜又越宮垣 爲鋪軍所捕 鞫之 洪述海之子相範所遣也 相簡旣斃 其父趾海叔續

海竝島配 述海亦以海藩犯贓 減死杖流 其子姪妻妾 日夜怨望國家 謂爲不軌 述海之妻孝任 使妖巫 詛呪埋凶 洪啓能與述海之姪相吉相格李澤遂等 隱謀以太甲桐宮癸亥反正爲說 所欲推戴者 宗臣礯也 諸賊皆伏誅 群臣以礯王室至親 名入推戴 請逮問 王遽起入不出 百官伏殿庭力請誅礯王猶不許 大臣禁堂 卒致礯于王府 令自盡 矜拒不從 復告于王而賜之死 王傷慟 命內司厚葬之 於是 纂明義原續兩錄 以著諸逆始末 洪國榮自宮官時 特被寵任 王即位 驟加顯擢 握重兵處禁中 日益驕恣 擅作威福 王漸燭其奸 隱忍未發也 時貞純大妃下內教 命揀選士族 置諸嬪御 以廣求儲嗣 國榮之妹應嬪 選未幾嬪喪 國榮乃倡言曰 廣儲嗣之舉 不可再也 祢有子湛 國榮視以奇貨 改其君號曰完豐 恒言曰吾甥也 使爲洪嬪守殯官聞者驚心 道路以目 又引宋德相 假儒名應召而至 投疏言儲嗣事 有曰 某樣道理 非在下者所可指陳 臣對宿衛將臣 以此事爲第一義 宿衛將臣 卽國榮 而此事指湛事也 王 顧欲保全其終始 前席數其罪 使之引退 尋命放之田里而死 文孝世子生五歲而薨 大妃又下內教 布示國榮陰圖移國之罪 又以喪變 責群臣之緩討 於是 賓廳請奪湛封爵 絶其屬籍 斷祔以王法 王取其啓火之 湛之母舅宋樂休 又上變告將臣具善復 通關祔湛事盡發 善復遂伏誅 百官庭請置祔於法 王 輒閉閣却膳 諸臣伏閣免冠固爭 乃命祔竝其家室 置江華 教曰 昔梁獄至懼 漢景力保梁武 賴有田叔之忠耳 惜乎今日廷臣 非田叔之罪人乎 且其待予何太不若漢景 王 雖島置祔 而命內府 繼其衣食 間饋織於道 又常遣內司官 密召入見 廷臣每爭之 王曰 此所謂周公之過也 後又全釋厚謙之母 王 以其先王之所愛 雖稔惡貫盈 曲加寬貸 始流畿島 後令入京 至於引入大內見之 廷臣亦爭不得 祢禎礯 皆王之庶弟 禎於英宗時 謫死耽羅 王 追念盡然 用崇品宗臣禮改葬 臨其廟奠祭 賜美謚 親製其墓碑 王於中歲以後 詈慨然曰 漢家四百年基業 豈不

由於風流篤厚 禁網疎闊乎 予欲使今之世 非身犯惡逆者 竝爲疏蕩 朝無
擢辟之人 世無見棄之家 豈非導和祈命之本乎 於朝臣 曲察下情 存沒之
際 隱卹尤至 方春將賞花 已日 相臣在殯 豈可遊衍乎 尤惓惓於民事 方
伯守令之差送 必引對面諭 察民隱救民瘼 時遣繡衣 刺舉匪法而伸無告
或召見郡邑朝正吏 詢民疾苦 置器測雨 竖竿占風 一雨一暘 必關聖慮 明
禮宮爲東宮別帑 王 於代理初 曰宜先清本 卽付之度支 各宮房私遺宮差
徵稅納於宮庄所在 橫擎虐斂 民不堪其苦 內司刷官 往諸道 推刷奴婢 操
縱百端 刷官所至 村里爲空 弊皆久痼 王曰 利於國 利於民 肌膚何惜 先
王所以諄諄於寡人也 宮結之代盡未收 法外加受 損國用 宮差橫斂 尤害
民 遂查代盡及加受者 竝還地部 宮稅各邑直納戶曹 戶曹劃給各宮 而罷
宮差永革刷官 令諸道比摠施行 又裁省宮人 罷移送名色 以其費歸之經用
京營獵 雉軍卽鷹師舊契 每行獵獵軍 十百爲群 橫行 騷擾 至有殺越人者
乃罷獵雉軍 減關西貢麥 鐮濟州貢鯁 曰此先王意也 又蕩減八道舊糴十萬
石 曰 先王五十年苦心愛民 如子繼述之道 無先乎此 遇荒年 日接廊廟之
臣 講究賙求之策 列荒政之要 書之殿壁 常目而施行之 遣近臣慰諭董飭
一札十行 遍於諸道 鐮常貢減常稅 發倉移粟以賑之 停糴餉以寬之 捐帑
貨以補之 繼甸饑 王曰 今之發賣 卽漢之賑貸也 令京兆 抄饑民 減直給
米 都下錢荒 出官錢十五萬緡 除其殖 以貸貢市民 以耽羅處絕海 每歉荒
憂軫尤勤 嘗下帑錢百萬於湖南 令貿粟濟之 親製文祭海神祈利涉 又愍幼
稚之遺棄道路者 倣古廣濟院育嬰社之法 著字恤典則 頒中外 以收養之數
每月登聞 其收養人 官給口糧 京師疹疫熾行 王曰 禮祭 古禮也 命設別
厲祭于四郊 令五部 訪問坊曲之貧 不能自力療治者 兩醫司揀醫人 診視
給藥 時 方有文孝之喪 而王猶日飭有司救恤 所全活甚衆 又命京外 盡掩
埋邱隴之朽露者 王之世 蓋無一民不被其仁 生死竝浹 紦慎刑獄 惟恐一

夫之或枉 每判諸道錄案 侍臣承書 更番至暮 而王未有倦色 內閣袁輯御判 爲審理錄二十六卷 其一字 皆惻怛審克之意也 飭獄官 常灑掃獄戶 洗滌杻械 小罪卽決 遣取笞杖 榆棍之不如法者 皆釐正 撰欽恤典則 通行爲式 又教曰 唐宋皆五日一錄囚 我朝十日一錄啓 十日之間 雖有被枉之囚 安得以自達乎 自今該曹 五日一錄囚 寢園植木有蟲損 方捕之 古皆掘坑焚瘞 王曰 蟲是生物 驅而放諸 勝於烈而焚之 嘗聞蟲飛入海 化爲魚鰐 其令投之海浦 嘗謙于芙蓉之亭 有燕巢樑 將哺子 飛繞不入 王憐之 遂起去 是又禽蟲之微 亦囿於至仁之澤 傳曰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其王之謂乎 英宗御製旣編印 王 以光廟肅廟兩朝 但有奎章閣之名稱 而未有設置 無御製尊閣之所 如宋龍圖天章之制 乃建奎章閣於內苑 列聖宸章寶翰 別爲奉謨堂奉之 又以先朝編次人 有其事而無其官 倣龍圖閣學士直學士置提學直提學 又置直閣待敎 以倣直閣待制 畫寫御真 奉于閣之宙合樓 御書摛文之院 扁直署 遂臨院 命時原任閣臣 挾冊升堂 講近思錄 辨論經義 敷陳治道 因幸弘文館 講心經 後置大提學 以文衡閤望人 待旨擬差 而竟未有拜者 行抄啓文臣講製 王 以文臣專經之講 月課之製 作輒無常 非作成之道 命政府 抄啓槐院參上參外三十七歲以下人 月講經史 旬試程文 考優劣行賞罰 時常勸課 至誠不倦 自辛丑選以後凡十選 今之公卿大夫 多是選中人也 御春塘臺 召講太學儒生 仍設食堂 曰 程子見僧舍會食 歎其有三代威儀 况賢關之食堂乎 鼓進齒坐 秩然其可觀 予故樂與諸生共之 薙鹽雖薄 勝於珍饌 下御題于泮宮 試諸生 召被選人 宣法醞 撤常御銀盃賜之 鑄其腹曰 我有嘉賓 諸生賦歌詩 以詠其事 親綴銘詩序以弁之 曰 太學銀盃詩集 修明太學講試之規 或臨軒親試 或頒題親考 或條問經義 往往賜上第 除初仕 賞賚遍及 至于八方 莫不賓興 有瓊林闈喜錄正始 文程 嶠南關東耽羅豐沛關北關西賓興錄 樂育譽髦之盛 古未有也 命大臣

銓臣方伯之臣 薦進專治朱子書者 誅習西洋耶蘇邪教者尹持忠權尙然 王自養德春宮 非問寢視膳 則潛心經籍 及御極 一日萬幾 宵衣旰食 而左右縹緲 仰思俯索 夜以繼晝曰 予豈有問學工夫 而以經歷之多艱 不能無動心忍性之益 又曰 予始留意於作家 又從事於經學 亦嘗用工於端拱曲跪今而思之 未覺有補於身心 且帝王之學 與韋布不同 自有大於此者 心性理氣 猶不必毫分縷析 况詞章述作 何足費吾心力 其發爲雲漢 神明變化瀨瀨渢渢 可與典謨雅頌竝美 有弘齋全書三集一百卷 又有大學類義尊周彙編經史子集四部手圈宋史真詮五倫行實鄉禮合編八家百選 朱子書會英選統百選會選節約諸編 有以契夫刪述之旨 而其積中彰外之文 皆於是乎 在明正學闡邪術崇經訓黜雜稗 由五教三物 大興庠序 一時待文之士 莫不鼓舞振作於鳶魚飛躍之中 傳曰 文王既沒 文不在茲乎 其王之謂乎 [○]王天挺勇智 神武蓋世 閼歷艱虞 掃蕩群兇 捏攬王綱 太阿在手 舒慘弛張人莫敢窺其際 宮府一體 表裏洞達 內自朝廷之上 以至窮閭遐陬 人人以謂上帝臨汝 置宣薦禁旅 以開入彀之塗 罷守禦京營 設北關兩鎮 以汰冗兵 而拓邊荒 著兵學通武藝圖譜 以盡衝衡奇正坐作擊刺之法 暇日御內苑肄陳以觀之 顧眄指揮 風雲翕歛 蓋我寧陵滌惱堂試馬之志也 其於射藝得於天分 五十發輒四十九中 曰 物不可盈也 至於壯勇營之設 不徒以備宿衛 飭戎垣 常以均役之法 減布惠民之先朝至意 而任事之臣 不能對揚率苟且不便 擬將罷此而更之也 其規畫施措 神算所及 蓋非摸度驟議者所可知 又如外營之定衛部舊制 亦有深意在焉 嘴呼 其已矣 書曰 布昭聖武兆民允懷 其王之謂乎 丙申追奪李光佐趙泰億崔錫恒官爵 王 以辛壬義理宜先闡明 命遵乙亥處分 辛丑賜祭于四忠祠 贈故學生徐德修職 甲辰 賜祭四大臣三將臣四節度及達城府院君徐宗悌 贈判書李廷燭 旌贈判書趙聖復 贈參判金省行間 戊申三月 教曰 是年是月 卽我先王揚武戡亂之年若

月也 舊甲云回 徒見山高而水清 以小子追感之心 葛其不醻忠報勞 以答前寧人攸受休哉 乃遍酌殉節勤事諸臣 命諸道 訪問從征將士生存者收錄之 又追念壬午以前盡分諸臣皆加褒美 初世祖命大提學申叔舟 撰太祖太宗世宗文宗四朝寶鑑 而其後只有李端夏所編宣廟寶鑑 李德壽所編肅廟寶鑑 及英宗實錄成 王 命仍纂寶鑑 又以十二朝尚未有寶鑑 幷爲編輯 凡六十有八卷 教曰 列朝玉冊金寶 倣周廟之陳寶器 必皆奉安于入廟之時 而寶鑑所以揄揚功德 垂裕來嗣 實與西序大訓同 其規模 雖琬琰之表徽 璩章之昭度 猶不足以喻其重 乃親上于宗廟永寧殿 分藏各室 尊英宗爲世室王 又得英宗所編羹牆錄曰 列聖朝治法征謨 盡在是矣 寶鑑編年 是錄彙類 便於覽省 尤要且切 命閣臣續纂之 王凡一日事爲 輒有記識 以起居注之多錯漏 命內閣 別爲編錄 取曾子日三省之義 名曰日省錄 閣臣又錄登筵承聆聖語 爲日得錄 王 諭之曰 此錄如經義問難時政酬酢 欲資觀省也 若但溢美鋪張 後之觀者 謂此時何如也 嘗曠惑於端廟時事 親製文致爵六臣 博考殉義諸臣 凡得二百三十人 設壇于莊陵側 春秋配食侑祀 有莊陵配食錄 每望拜皇壇 輒遣官審宣武祠 命李提督世祀不祧 宣額於龍灣之顯忠紀忠兩祠 累賜七義士 林寅觀等九十五人 壇而酌之 以慰漢冠之獨葆秉義 斥和諸臣 累皆表獎存錄 建忠臣義士壇 撰旌忠尚武碑 有尊周錄 王於三皇忌辰 輒御素膳日 近古以上 公坐會食 不食牛肉 國忌 朝臣皆茹素兩日 先朝初年猶如此 今則不然矣 觀刈于東耤 賜勞酒田夫 下綸音勸農 每於元正 必下綸音勸農 而以觀刈又申之 王 常謂欲法堯舜 當法祖宗 恢廓之度 承乎太祖 巍煥之文 監乎世宗 英武若光廟 至行若孝陵 積善風泉 大義彰著 若孝廟 進退賢邪 威斷有赫 肅祖之治體也 建其皇極 保我世臣 英考之心法也 書曰 不顯哉 文王謨 不承哉 武王烈 其王之謂乎 先王魂殿 既啓殯 王曰 壽禮補編 以魂箱行朝祖 夫喪禮 有進而無退 檀弓負夏

主人既祖 推柩而返之 子游譏其失禮 戶庭之內 推而返之 猶譏其失禮 況以魂箱出辭太廟 還奉殯殿 又魂返室堂 卽先儒之言 朝祖不以梓宮 而以魂箱俱非禮意 欲準古禮 則古今異宜 此不可遽議也 遂命依五禮儀 國制禫之日 陳軒懸振作 王曰 祥而縞 是月禫 徒月樂 孟獻子禫懸而不樂 夫子曰 加於人一等 慨廓之餘 何忍遽聞鐘鼓之音乎 禫月 大小法樂 懸而不作 著爲式 吉禘于太廟 特命忠獻公金昌集 配享于英宗廟庭 文正公宋時列 追配孝宗廟庭 始 政府議上英宗配享諸臣 以昌集未及逮事 不入於議 王曰 宋張浚 有功於孝宗建策 時議者有事在異朝 難於配庭之論 而楊萬里獨以爲當配 故相決策之大義 殉身之危忠 正當援張浚之事 又曰 孝廟之於先正 契合密勿 卽春秋大義也 不爲配享 誠欠典 於昭在上之靈 安知不有待於芬苾蒼蒼之時乎 翼成公黃喜 追配世宗 文敬公金安國 追配仁宗文正追配 又可已乎 桓祖誕降之八回甲乙卯 遣大臣 行酌獻禮于咸興本宮 咸興儒生 有以永興本宮典祀廳故蹟上疏者 王感悟 詢議廷臣 乃遣大臣禮官 踏享桓祖大王懿惠王后于永興本宮 兩本宮之奉先王先后位版 蓋原廟之制也 舊令內司別差典祀享 率多違禮 王 乃悉正其儀節 歲封衣幣 必宿齋躬莅 祈穀于大社 陞爲大祀 飭諸路社壇 修治禁護 月報宗伯 考勤慢享皇壇 始定親省牲器 從祀文靖公金麟厚於聖廡 改謚文正 賜額文正公宋時烈祠之在驪州者曰大老祠 御製御筆 爲碑樹其庭 徧修檀君箕聖 三國高麗始祖諸王陵 號溫祚王廟曰崇烈殿 禁宦侍母敢與外臣接語 盡出巫覡于江外 僧尼勿許入京城 下綸音于諸道 講鄉飲酒之禮 又誥休老勞農廣敬因本之義 緣農書 應旨進書者甚多 我朝經制之書 世宗創六典 世祖著經國大典 成宗時有續錄 肅宗時有輯錄通考 先朝有續大典 王以原典續典 各爲一書 艱於考據 命取二典及續典後先王教令當寧受教 可著爲令者 通爲一書 是爲大典通編 頒行中外 嘗行大政 教曰 西京最重吏選 今也不然

用人既用科目 而文之侍從 反不若蔭武 內而未爲掌賦之官 外而未爲字牧
之任 金穀甲兵 皆所茫昧 若使新進文臣 試吏下邑 習知民生之疾苦 及其
駟召而來 篡言退牘 陳其利弊 九重雖邃 四野在邇 其有裨於民國 勝於日
遺繡衣 乃飭文蔭武互差之政 王以不世出之姿 有大有爲之志 董正治官
斟酌質文 凡吉凶軍賓之儀文度數 莫不參伍經曲 博極今古 禮樂物采 粲
然備成 以至官府郡縣 莫不有志 量衡律度 莫不有則 等謨銓注軍實獄決
邦用民數 莫不有考 而一部大典 秩然一王之成憲 詩曰 遙求厥寧 遙觀厥
成 其王之謂乎 王 嚴恭寅畏 昭事上天 容光所照 未嘗跛倚 更衣便旋 未
嘗北向 曰北辰所居也 遇疾風迅雷甚雨 必變必興 親裸宗廟 周旋出戶 齊
齊乎其敬也 升降薦獻 趕進翼如也 百辟駿奔 莫不肅雍 其或命攝 則遣近
臣眡其事 出御齋殿以候 聞禮畢乃休 其陵園諸享 必進餽果糗餌 跪而嘗
之 嘗大暑 御賓筵教曰 今日熱 輒有卿等夙退之意 此怠心也 仍竟日乃罷
清燕晉接 簡其禮數 天笑每新 溫然若家人父子 俄而出御法殿 群臣俯伏
抑首 莫敢仰視 曾經賓客兩坊官者 雖蔭官 稱其職而不名 雖內覲私昵 戚
畹之臣 不敢干朝政 中涓之輩 非公事不敢輒至於前 嘗曰 接士大夫時多
接宦官宮妾時少 予於此庶無愧也 若金龜柱之以胄筵語 論洪鳳漢於大朝
則島棘之 洪樂任置頌曆單 洪守榮差享官 則竄兵判銓官 處分必赫然兩嚴
勤於政事 凡朝參常參賓對輪對 必皆行之 諸臣章奏 中外狀牘 卽報可否
無一或淹日 輒引接臣隣 多至夜分 禁鑰未開 命令已下 至中昃不遑暇食
有以過於勤勞爲言者 王曰 我自不疲 守成之君 只當以勤政憂民爲心 不
如是 亦將安所用其心哉 慎乃儉德 衣有屢澣 非衰服則未嘗御錦綺 御膳
無珍奢奇鮮之味 寢殿樸陋 窓壁至熏煤如塗 有司請葺理 王曰 是豈有甚
費而不爲哉 我自不見其爲陋也 御座之側 圖書器物 皆齊整有定處 堂皇
突奧之內 井然如位著 亦可以仰知幽獨之地也 傳曰 齊莊中正 足以有敬

也 其王之謂乎 旱將祈雨 知製教撰進祭文 王曰 冊祝無罪己之語可乎 命改之 遂下綸音 以十事責躬 又嘗禱雨于大雩 列日中屏傘 蓋御步輿 至壇露坐 竟日既訖事 還宮不脫袞冕 以待已而果雨 王 顧諤明命 上帝是祗 每日 天遠乎哉 在方寸間 或有災沴 恐懼省檢 於始靡懈 固聰明聖知 百代之治亂 九流之藝術 人物之性情 鬼神之變化 無不心喻而意解曰 理一而已 包羅萬有 酬酢百爲 每臨筵 啓奏迭前 廟謨臺章刑獄財賦 一時并舉 泛應曲當 沛然有餘暇 取人爲善 不以疎遠卑賤而或遺 群臣進見 必假之顏色 導之使言 言或拂意 未嘗加之威怒 求言之教 前後十數下 嘗曰 先朝晚年 尚多危言激論 近日無敢言者 岂以寡人惡聞其過乎 急賢如渴 有以經術進者 有以文學進者 有以才猷進者 有以世祿勳舊進者 或拔擢於衆棄之中 或拂拭於罪累之餘 皆得自效其尺寸之能 嘗扁寢殿曰 蕩蕩平平室 又著萬川明月主人翁序以自喻 易曰 聖人崇德而廣業 崇效天卑法地 其王之謂乎 十四年庚戌 紹嬪嘉順宮 誕我殿下 王 命王妃 取以爲子 乃大赦 賦耆民爵百歲人加給米肉 鑄諸道舊糴 減除諸稅 是歲大熟 二十四年庚申 正月上日 拜景慕宮 是月拜顯隆園 伏地嗚咽失聲曰 今日又忍辭園而歸耶 比還駕 益疚懷 自是頻有不安節 二月乙酉 冠我殿下 冊爲王世子 遵顯宗故事 嘉禮將并行於是年 嬪宮初揀 今坤殿膺選 永安府院君安東金祖淳女 是日還第也 特命具儀衛如三揀焉 至六月之初 又有癒候 日沈劇 猶以民事不可緩 教承旨 毋滯啓奏 二十八日己卯 疾大漸 大臣閣臣入候臥內 王已不能語 而微微有玉音曰 壽靜殿 卽貞純大妃所御殿 蓋聖意若有仰告於慈聖者也 遂昇遐于昌慶宮之迎春軒 春秋四十九 大喪之日 都人士庶 顛仆哭踊 深山窮谷 莫不悲號 如喪其父母焉 嘴呼 痛矣 我殿下 與大小臣考古謚法 謹上尊謚曰文成武烈聖仁莊孝 廟號正宗 若王之爲正 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道學之正也 建天地而不悖 候百世而不惑 義理

之正也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治法征謨之正也
謚者 行之跡 號者 功之表 嘴呼 其庶矣 而大德得其名 獨不得其壽 天之所以保佑命之者 果何徵 豈亦所謂氣數之使然 而雖然儀式刑文王之典 日
靖四方 宗廟饗之 子孫保之 萬世永賴 此可大徵矣 王妃金氏 清風府院君
忠翼公諱佑明 顯宗明聖王后考也 而於后爲五世祖 左參贊贈領議政清原
府院君靖翼公諱時默唐城府夫人南陽洪氏 后之考妣也 以英宗癸酉十二月
十三日 誕后于漢師之私第 園之桃李 忽盡再榮 家人異之 已而后生焉 后
德容天成 貞閒婉嫕 動止有則 九歲膺揀選 英宗嘉甚 手書五世繼昔寔爲
宗國八字賜之 至十歲之二月 冊爲世孫嬪 丙申正位中壇 庚申我殿下嗣服
尊爲王大妃 議進尊號 后曰 先王不受號 以至慟在心也 未亡人受之 於先
王精義何 我殿下雖缺然於孝心 而群臣益感服 庚辰冬 大臣禮官奏 再明年
慈壽躋七旬 禮當稱慶 而其歲壬午也 請進行賀禮於膺揀周甲之明年 乃
月正元日 殿下率世子百官 奉箋上賀 又將仰稽英宗丙子仁元大妃盛事 以
議慶喜之典 后則益以爲疚 始微不豫 開月漸劇 禮陟于同宮之慈慶殿 嘴呼
痛矣 后性仁孝恭儉 自入宮之初 屢際艱難之會 壬午之閏 有命惠嬪及
后 各還私第 后願隨惠嬪所在 英宗聞而善之 事莊獻世子未半年 以承事
之無幾 益爲沒身之慟 奉惠慶宮 怡愉洞屬 常若不勝 庚申以後 又一以王
之所以事之者事之 於貞純大妃亦然 與二郡主 友愛甚至 恳言人過 喜怒
不形於色 戚屬有失 未嘗加之誚責 但淵默不言 其人率慙惶甚於被譴云
尤以私家恩澤爲戒 雖以物施者 未嘗輒有私與 自奉甚踈約 服飾器用 僅
取供給而已 中年 后忽有候若娠 王喜甚 亟設產室 踰歲竟無育至 庚戌即
定大倫 顧復之恩 不啻已出 我殿下又愛敬篤盡 慈孝之盛 宛然如昔日 始
戊戌 臺臣朴在源 以貞純諺教 有坤殿患候嗣續無望之語 請求良醫調治
國榮大怒 公坐叱罵在源 當此時 后之處洪嬪之難可知也 而王卒察在源之

忠特贈美官以旌之兩殿之無間然又如此此皆王之明而后之德也其在長樂則益無得以形容上天之載嗚呼其德之至矣群臣悉慎錄上謚號曰孝懿徽號曰睿敬慈粹嗚呼亦庶矣后之籍系世德有前大提學金祖淳所撰誌文詳之嘉順宮又生淑善翁主下嫁永明尉洪顯周殿下生二男長世子次不育二公主長封明溫次未封一翁主亦未封淑善生一子嗚呼先王亦嘗察臣慙拙再攀墮鬚忍不辱蟻而猥執記述戒懼不足以知德之萬一其忍敢溢千歲在後是可以質之矣

[大提學沈象奎製]